

## 고린도전서 1 장

### 척 스미스 목사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는 특권과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경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위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더 배우는 시간을 갖고져 모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오늘 저녁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움직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오늘 밤 주님께로부터 받게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이 예배,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행함을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 장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18 장에서 우리는 바울에 의해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18 장에 회당장 중의 한사람인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에 소스데네라고 이름 하는 또 다른 회당장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에서 고소했고, 로마인 판사, 갈리오가 그 고소를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일 그것이 로마법에 저촉된 문제거나 어떤 행동이면, 내가 너희를 듣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단순한 언어와 종교적 개념에 관한 다툼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했던 회당장 소스데네는 무리에 의해 구타를 당했지만, 로마인 판사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 고린도에 더 여러 날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어떤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그들과 더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 년을 머물면서 에베소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거한지 3 년이 다 되어갈 무렵 그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소식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고, 바울은 그들 자신을 분리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당파로 나눈 것에 대해 그들에게 썼습니다. 또 거기에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거행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공중이 모인 곳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음에서부터 부활에 관한 그들의 신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사람들에게 썼는데, 근본적으로 바르게하기 위한 사도서신으로써, 바울에게 알려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장에서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쓴 편지에 사도행전 18 장에 있는 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첫 이름이 1 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소스데네로서 그는 바울을 대적하여 갈리오 앞에 고소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같은 소스데네인지는 추측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같은 소스데네라면, 한때 사도바울에게 복음의 적이였었는데 지금은 바울과 동반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서 함께 그들을 연합시키십니다. 주님은 결속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번 전혀 상반되는 곳에서 온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하나가 되게하십니다.

이제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는, 보통 그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받을 자에게 쓰고, 그 다음에 인사말과 그 후에 감사의 말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네 가지 요소들로 거의 대부분의 편지들을 썼으며,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인사말과 그 다음 감사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시대에 편지 쓰는 전형적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바울은 종종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만일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쓰는 사람을 소개 하는데 바울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의 머리를 긁으면서,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꼭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인지를 당신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는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내가 먼저 언급한 것같이 만일 같은 소스데네라면,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한때 원수였던 사람이 지금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열 구절에 바울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을 가리키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절만 빼고 매 구절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5 절에는 주님께 의해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주님께 의해 풍족해 졌습니다. 그러니 여기 기본 소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중심이 된 그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라고 말하고 쓴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첫 열 구절 안에 주님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이 말은 hagios 로 거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주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하여진, 또는 다른 말로, 구별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사용된 그릇들은 모두 거룩하여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전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구별해 놓은 그릇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사용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사용하기 위해 구별된 것이 “거룩하여지고” 란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유일한 목적을 위해 그의 교회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그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런 다음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으로 부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카톨릭 교회에는 성인이 되는데 엄격한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 있는 동안 특별한 삶을 살아야하고 죽은 후에는 당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합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에게 기도했고, 당신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는 증언들이 충분히 있다면 그 때 그들은 당신을 성인으로 교회에 발표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바라보니 아무도 이 영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성도(성인)라 부르십니다.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교회가 성인의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이 나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보시는 그 사실만으로 좋습니다.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3.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좃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헬라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말 그 자체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 *shalom*(shalom)입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인들의 일상 인사말인 은혜와 히브리인들의 일상 인사말인 *shalom*을 합했습니다. 모든 바울 서신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인사말로 시작했으며, 항상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는 한번도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지 않고,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썼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나의 크리스천 삶의 수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나의 크리스천으로써의 삶은 투쟁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었습니다. 내가 기대에 달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투쟁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해 지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까지 나의 크리스천 삶은 투쟁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 나는 그 때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 안에서 쉬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인정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계속 그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는 그분의 직함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하고 말할 때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을 표시하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직함입니다.

예수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요셉은 자기와 무관하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녀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와 복합 이름 중 하나인 *여호수아(Yehowshuwa)*이며,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Yehowshuwa)*,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여호와와는 구원이시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는 메시아, 곧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헬라어 *Christos*는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며, 히브리어로는 *Mashiyach*,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Mashiyach)*,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부었고, 그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실 분, 메시아,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의 씨에서부터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Christos)*,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심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그분에 대한 우리의 관계), 예수 (그분의 이름, 여호와와 구원이시라) 그리고 *Mashiyach*, 그분의 직함으로 메시야이십니다.

**4.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편지 초반의 넷째부분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와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 . . 에 풍족하므로,** (아, 내가 나의 삶을 돌아 볼 때에, 나는 진정으로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풍족했고, 나의 삶이 그렇게 풍부한 것은 모두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6.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된 것이 너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성령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여러분 안에 확고히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와 함께 증거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고하게 합니다.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는 교회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성령의 은사들을 잘못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말했지만, 다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용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것에 대해 쓰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바로 사용하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용하는 것을 고치도록 써서 우리로 성령의 은사들을 바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12 장과 14 장에 가면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 다루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나 그들은 은사에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같이 여러 시대를

통한 모든 교회들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교회가 항상 주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신다는 기대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 하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대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습니다.

**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이 오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계속 기대하면서 살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라 함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를 말합니다. 그 때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이 그의 첫 편지를 썼을 때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제(fellowship)란 말은 헬라어 *Koinonia* 로써 실지로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Koinonia* 와 똑 같은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경험하는 친구관계보다 훨씬 깊은 관계입니다. 그것은 때로 영적친교(communion)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종종 교제(fellowship)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one)로 번역됩니다. 일치, 단일, 친교, 교제, 이 모두를 다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한 부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하나인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아들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교제의 개념은 공통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소유(*Koinonia*)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친교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Koinonia*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편지 서문에, 자신을 소개하고, 수신자들에게 인사말과 감사에 대해 썼습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쓰게 만든 문제들에 대해 쓰기 시작합니다.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을 위한 그의 간청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서 일어난 이러한 분열과 당파들을 만들지 말고 연합하기를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에, 바울은 이러한 당파들은 육신적임을 표한다고 그들에게 말 합니다. 그것들은 육적 삶의 모습들이며 성령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연합시키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보지 못 한다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알리려하다 큰 다툼을 하고, 그들을 제명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믿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믿는 것처럼 믿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단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견해를 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견해와 동의할 것을 강요합니다.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당연히 믿음의 어떤 부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까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 즉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교리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실하고도 뚜렷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지만, 추측을 동반하거나 의견을 포함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추측과 의견을 수반하는 부분들에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뚜렷하거나 확실치 않는 부분들을 보려는 경향이 있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나는 단지 미소만 짓습니다. 그는 이것이 맞는다면 당신이 아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글썄, 나는 모릅니다. 그것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의견을 요구합니다. 나의 의견은 사실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아는 것에 충실하십시오. 말씀의 확실한 가르침이 있다면 당신을 관찮습니다. 만약 당신이 추측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지 그것은 추측이라고 말하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에서 어떤 것에 대해 이것은 내가 쓰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나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꼭 성령의 감동됨이 아니며, 단지 그가 그렇게 느끼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당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당신의 의견과 생각으로만 두십시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당신의 생각과 동의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분열을 갖지 말기를 권하고 간청합니다.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러한 분열을 글로에의 가족 중에서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분쟁은 잘못되게 합니다. 분쟁이 있을 때, 진짜 다툼이 시작됩니다.)

**12.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러한 분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과 동의합니다. 글세, 나는 게바와 동의 합니다. 나는 아볼로와 동의합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당파들로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요. 나는 장로교인이요. 나는 성공회원이요. 나는 침례교인이요.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안에서 종파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파를 둘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나사렛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우리들 사이에 담을 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장애물들을 만듭니다. 당신이 루터 교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완전히 소속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분리하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로 보기보다는 부분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례교를 축복하셔서 부흥이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하기를, 당신도 알다시피 그들은 침례교인들이고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세! 그리스도의 몸이 증대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있다고 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담을 쌓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다소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더 나쁜게는 종종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지킵니다. 언젠지 한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났고 타락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교파로 갈려고 한다면, 비참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교파들로 바뀌는 시작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눠었느냐?**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눠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다음 그는 말하길, **14.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15.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나는 가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묻기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왜 세례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즉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임을 압니다. 그들은 어떤 이가 그리스도께로 오는 경우 곧바로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중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기까지는 실제로 구원 받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나의 대답에 관심이 없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세례를 즉시 주지 않으면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즉각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을 합리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나는 보통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썼던 이 성경 구절을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단지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스테바나 집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기억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세례가 중생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바울이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가장 큰 모독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왜 교파가 있는지 이해합니다. 교파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방법으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은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예식적 교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성격과 짜임새를 갖고 있기에 그러한 예배가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식적 교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음을 아십니다. 그들은 매우 감성적인 환경에서만 하나님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외침과 소리지름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실 그러한 방법만이 그들이 하나님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감정적 경험을 가지며 그들의 감정을 내뽐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카리스마적이고 오순절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흠뻑 침례를 받아야만 하고 물 뿌림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쟁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옳아야 하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를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우리에게 말하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헬라인들에게 그것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개념은 헬라인의 생각에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개념, 그것은 헬라인들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옵니다. 바울은 15장에서 그가 전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신약 전체를 통해 전해진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19.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쓰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하나 어리석게 된 것은, 그들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장미를 쥐고 그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것의 아름다운 질은 색깔을 봅니다. 그들은 그것을 코에 갖다 대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심호흡을 합니다. 그들은 꽃잎의 대칭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봅니다. 그들은, 아! 그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바보 멍청이 짓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피조물을 보면서 그것을 경배하는 것은 불합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피조물을 보면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당신이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눈의 신경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1 초에 18 개의 형상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동을 일으키는 젤리 같은 투명한 것으로 당신의 뇌로 보내지고 당신은 이 동작 감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1 초에 18 개의 형상들이 뇌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비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색깔을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재적인 디자인이고 무한한 지혜입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안구

안에 두고 작은 열 개의 근육을 붙여서 그것들이 앞, 뒤,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수백만년을 통한 우발적인 환경의 우연의 사건들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당신의 눈을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벌레가 분비물에서 나와 햇빛으로 나왔고 그의 앞 쪽의 등위에 얼룩이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아직 머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얼룩은 서서히 오랜 기간을 통해 점차적으로 진화되어 변화되었습니다. 산호나 조개삿갓 등은 서로 스쳐 상처를 내어서 혹이나 피부 경결로 변하여 그 아랫 부분의 침식을 낳아 궁극적으로 다리가 되었고 그 불도마뱀은 이제 볼 수 있으며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나는 더 이상 만화책을 읽지 않습니다. 나는 진화론 책을 읽습니다.

**21.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옴의 친구들이 옴에게 묻기를, 누가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인간이 만든 종교의 문제 중 한 가지는 지상에서 시작하여 무한, 즉 무한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추구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유한의 인간은 무한의 하나님을 결코 달지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한의 하나님께서는 쉽게 인간에게 닿을 수 있으십니다. 기독교와 이 세상 여러 종교의 차이점은 이 세상의 종교는 유한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무한의 하나님께서 유한의 인간에게 손을 내미시고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것을 전함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에게 나아올 지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듣지 못한 그분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 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심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십니다. 그들은 증거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하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나 탐색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억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냐하면 구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고 이룩하실 메시아의 많은 약속들이 있었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명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의롭고 정의롭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동안은 더 이상의 육체적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들을 것입니다. 병어리가 찬양을 부를 것이며 절름발이가 뛰며 걸을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동안은 그들의 검들을 쟁기로 사용할 것이고 그들의 창들을 나무치는 갈고리로 그리고 더 이상 전쟁에 관해 연구치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아래에서는 이상적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아직 찾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관한 다른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에 의해 멸시 당하실 것이고 거절당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애통과 함께 하고 비통의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상함을 입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과를 인하여 찢김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죽으심으로 죄인들 가운데 세어 넣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죄과를 그분 위에 내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을 뚫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을 것입니다.

이런 아주 다른 예언들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그 차이점들을 화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멸시 당하심과 배반당하심, 그분의 죽음, 고통 등을 말했던 메시아의 모든 예언들을 영적으로 해석했으며, 그들은 단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왕국과 통치만을 말했던 것만을 붙잡고 영적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건축자들에 의해 거절 당하셨고, 멸시 당하셨으며, 버린바 되셨으며, 오직 죄의 용서함은 십자가를 통함임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그분 위에 내려 놓으셨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용서키 위한 의로운 기초로 십자가를 통하여만 있다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왕으로서 군림하셔야 하기에 인간에 의해 거절당하신 십자가의 사상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것은 어떤 이를 위해서 다른 이가 죽는다는 생각,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신다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독선적이고 정욕적인 우상 신들의 개념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고 너무나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24.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25.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는 여기에 많은 교수들이 없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 그분은 그들 위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순전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여 어린아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나는 나의 손자들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이 정신적으로 갖는 갖가지 갈등 없이 너무나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깊고도 의미 있는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함.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단순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8.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흥미로운 계획은 단지 순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29.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평범하고 순전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만약 내가 어떤 박사 학위를 여러 개를 가진 훌륭한 학자였다고 가장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을 보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박사인 것을 모르느냐고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 참 좋죠. 아,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원생! 아! 그 훌륭한 사람, 그 사람 놀랍지 않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순전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고기를 잡으러 도로 갔을 때, 그들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해변 가에서, 뭐 좀 잡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니요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반대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물은 큰 물고기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물이 너무나 무거워 그것을 배 위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물고기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음을 보았을 때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물이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당신은 알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뿐임을. 그것은 인간의 훌륭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도 인간의 솜씨도 아닙니다.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 온 그 뛰어난 사람들도 놀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의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30.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분은 지혜십니다. 그분은 의로움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함이십니다. 그분은 구속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께 경배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셨고 또 이루시고 계시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31.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 인들에게 편지 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랑 하려면 주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버지, 주님이 이루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들을 놀라움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리며, 우리 가운데 큰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주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을 여십시오. 바울이 1장에서 시작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주제로 시작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헬라인)들에게는 미려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로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게는 미려한 것입니다.

나는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야외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가 설교하고 있을 때에 그 군중 속에 아주 웃을 잘 입고 품위 있게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설교를 끝내자마자 다가와 그의 명함을 한 장 주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그 명함의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불가지론(不可知論) 사상으로 잘 알려진 사람 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그의 불가지론을 강연하고 다니면서 성경을 조롱하였습니다. 그의 명함 뒷면에는, 오는 토요일 밤에 아이언사이드 박사와 공개토론을 하자는 도전이 적혀있었습니다. 그가 만날 장소를 알려 주면서 불가지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수백 명이 있는 강대상 앞에 다시 서서, 그는 그 군중들에게 그 명함과, 불가지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토론을 하자는 그 사람의 도전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도전과 토론을 수락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술 중독과 방탕한 삶으로 인해 그의 삶의 기로의 마지막에 이르렀고 파괴되었다가 이 사람의 불가지론의 강연을 들은 결과로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단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매춘과 마약 등으로 인해 삶이 파괴되었다가 이 사람의 불가지론에 관해 말하는 강연을 듣고 그녀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깨끗하고 매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백 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올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백 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 그냥 서 있다가 손을 내저으며 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인 불가지론으로선 한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죽은 것을 살리지 못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당시 아덴은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레오바고(Areopogus)에서 모이곤 했습니다. 헬라는 철학자들과 세속적 지혜로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에 관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 세상이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려한 것을 택하사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2장에서 고린도인들에게 1장에서와 똑 같은 관념, 즉 십자가에 관하여 십자가의 전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과,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상의 지혜와 대조하여 쓰고 있습니다. *1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엇이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얻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순한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웅변술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듣고 돌아갈 때에, 그는 놀라운 연설가라고 말하며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의 말로 유혹하거나, 어떤 지혜로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증거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2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주 단순한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단순한 메시지를 너희와 나누는 것만이 나의 관심사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헬라인)에게는 미려한 것이로되, 오직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훌륭하고 넘치는 능력으로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한 가운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의 태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까지 바울이 간 곳마다 소동으로 끝났음을 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성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그를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를 재판장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베뢰아에서는 소동이 일어남으로 인해 바울을 서둘러 내쫓았습니다. 아덴에서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고린도에 도달했을 때쯤에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 고린도에 있었을 때도 보통 그랬던 것처럼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을 재판 자리 앞으로 데려왔고 재판장이 그 사건을 기각시킨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당신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일년 반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힘 있는 웅변가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웅변술로나 말의 능력으로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믿음은 얇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추리적인 능력으로 당신을 떠나가게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설득되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또한 떠나도록 설득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언사이드 박사처럼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어두움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형되어 지금은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변화시키는 능력 안에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6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은 정말로 세상의 지혜를 별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군주나 관원들의 지혜는 없어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점은 역사가 거의 다 증거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지혜, 레닌의 지혜를 채택한 소련을 보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없어집니다.

7오직 (우리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제 여기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대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전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 볼 때 세상의 지혜는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사용하는 비밀이란 말은, 어떤 범죄 영화에서 누가 범인인지 그 비밀을 풀려고 궁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비밀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사용하는 비밀이란 말은 감추어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드러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밀이었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멸시받고 버린바 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비밀이 나타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실제 죽음에 의해 계시된, 십자가의 비밀이 이제는 나타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다스리심과, 그분의 능력과, 변화된 세상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모순 되는 것 같지만, 메시아에 관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분의 손과 발을 찢렸고, 그분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기록되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타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은 곧 감춰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로부터 십자가 형 당하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성경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어린양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정하신 것, 곧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들 대신 죽으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타락한 인간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8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것은 이 비밀인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진실로 이해했었다더라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명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진실로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결코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9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당신은 이 구절을 천국으로 말하는 것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천국의 영광스러움,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에 대한 흥분함,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압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역시 그것은 천국을 가리키지만, 바울은 사실 이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세상적인 지혜의 무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10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죄의 용서와, 영생의 소망, 성령 안에서 행하며, 영에 속한 것들을 따라 산다는 것들을,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꿈꾸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의롭다함, 구속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참으로 누가 압니까? 당신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비밀된 것들을 압니다. 그러나 누가 사람의 일들을 진실로 압니까? 단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만이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압니다.

*12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영은 거역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거역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는 성령으로 그것들을 압니다.

요한 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과 그들과의 마지막 교류, 곧 주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아침이 되기 전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셨던 그 날 저녁 그들의 마음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떠나가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가시는 곳에 그들이 갈 수 없다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과 십자가 처형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근심에 쌓였던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야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나아가 같은 대화에서 말씀하시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후 다락방에서 겐세마네 동산으로 향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 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약속, 우리의 교사가 되시어 올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13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공부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 고린도서에 관한 주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특정한 구절들에 관하여 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실제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지혜로 독자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더 노력한 것 같습니다. 나는 주석을 읽으면서 더 혼동이 되어서 그 책을 옆에다 놓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신령한 것에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이 문단을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하려고 노력한 바로 그것을 바울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여 진리가 밝혀지도록 하나님의 영이 하시도록 두기보다 세상적 지혜로 접근하고 그들의 지혜로 감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14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사이의 다른 대조를 봅니다. 육체의 본성을 가진 육적인 사람 즉, 당신이 거듭나기 전의 당신을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 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육체에 의해 지배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과 대조할 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땅에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사람 대 영의 생각의 사람.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첫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의 일들은 그에게

수수께끼입니다. 당신이 칭의에 대하여, 대속에 대하여, 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위해 제공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 전혀 무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니, 그는 그것을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직 성령께서 우리들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의 일들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여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들이 사실상 그들에게겐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서는 그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나는 캐나다의 한 농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려 왔을 때 농가의 이층에 있었습니다. 한 침입자가 집안으로 들어와 그의 아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 침입자를 보았고 그를 잡아서 뒷문으로 내던지고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집의 뒷문 층계 밑에서 얼어 죽은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경찰서로 가서 그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자세한 조사를 했습니다. 재판 날이 정해졌고 그 사건 경위에 대한 모든 조사 보고의 기록을 낭독했습니다. 그것이 끝났을 때 그 재판장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한 일은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과 증거들은 이 법정에서 정당화되어졌으므로 다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마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당화(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기록들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셔서 우리의 고소장들을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 기록들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나는 마치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으로 섭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5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이란 아마도 불충분한 단어일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분별한다는 말이며, 그 개념은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것들을 이해합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 대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삶과 고투하고 발버둥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웃고 즐거워하는 태도를 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끔 그들은 당신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관심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갖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재미로 사는지의 이해합니다. 당신은 술도 안 마시고, 파티도 안하고 여자들을 쫓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삼니까? 그들은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부요하고 충만하며 완전하여서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평강을 가졌습니다.

몇 년 전 내 아들 중 한 아이가 나에게 정년퇴직할 것을 계속 강요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늙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직선적이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와이로 가서 테이프를 만들고 책을 쓰라고 했습니다. 바닷가의 집을 가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강행합니까? 아버지, 왜 그렇게 계속 많은 시간을 일하세요? 정년 퇴직하는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년퇴직하면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 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사는 것.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지는 않습니다.

16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위의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마음을 아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8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쓰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는 마음,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찾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과 얼마나 반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헬라어로는 kenosis(케노시스)로서 주님은 자기자신을 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다시 보면, 그가 한 때 가졌던 모든 것들, 그의 야망과 그가 성취했던 목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사이에서의 그의 지위, 유대교의 지도자 단체 중 하나인 산헤드린의 회원, 율법에 순종하고 흠 없이 지키는 것, 한 때 그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모든 것들을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제는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유대인 중에서의 그의 지위와 명성,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은 산헤드린의 회원으로서의 그 모든 명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과,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도와 구원의 단순한 메시지를 위해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했습니다. 해로 여긴 것들이 주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의로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죽어 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단순한 메시지가, 헬라인에게는 미려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

아버지, 오늘 밤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메시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메시지의 변화시키는 능력, 당신께서는 우리를 어두움의 세력에서 당신의 아들의 왕국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허한 옛 삶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만한 가치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갈 때, 이 어두움 안으로 당신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저들이 나아갈 때 당신의 증인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알려지고 읽혀지는 살아있는 서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빛이 매우 빛나게 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며 사람들이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고린도전서 3 장

말씀을 통한 이 공부를 계속키 위해 고린도전서 3 장을 펴십시오. 2 장 끝 부분에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자연인) 곧 중생하지 않은 사람, 세상적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담의 성품을 가진 사람, 최악된 본성을 가지고 그 죄성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에 관해 말합니다. 성령의 일이 저들에게는 사실상 미련한 것이며 또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영적인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 곧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이 영적인 생명 안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을 대조해 볼 때, 영적인 일들이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이해하나 자신은 육에 속한 사람(자연인)들에 의해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거듭난 신령한 자를 대조하여 말한 후에, 이제 여기 3 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에 관해 말합니다.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것은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령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에게 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가졌던 어려움은, 그들에게 신령한 일들에 대해 쓰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써야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이 서신은 근본적으로 바르게 교정하는 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잘못들을 바르게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씩 그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쯤은 자라고, 개발되어 영적인 성숙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역을 시작한지 4 년 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갓난아이의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의 구원은 믿지만, 아직도 그들의 육신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 장을 보면 바울이 그의 육신의 본성과의 싸움에 관한 대표적인 묘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사악한 법,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행하기를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또한 원치 않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7 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생명과 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겠는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삶에서 나와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 신령한 삶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 장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해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싸우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싸우는, 이런 대적하는 힘이 믿는 자들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삶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숙하지도 자라지도 않으며, 그들의 영적 삶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없으며, 그것은 틀린 명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들은 성장하지 못했고 발육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도의 초보를 넘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 장에서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안수를 회개하고, 완전한데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자라납시다. 발전합시다.

그런데 많은 경우 믿는 자들의 영적 미성숙은 목사들의 잘못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역시 나의 사역 초기에 사람들을 영적 미숙아로 머물게 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시다. 나는 제목 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종종 양들을 아주 책망하는 식으로 권고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양들을 매질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선한 일들을 하고 충성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권고하기에 힘썼지만 그들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았습시다. 그들의 영적 갓난아이 상태는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듭난 신자들로서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혹하게 징계하면서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채찍이 그들의 등을 내리칠 때 그들의 머리는 아래로 숙여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지 못할 정도로 그들에게 죄의식을 주었습니다. 불쌍하게도 내가 말한 것들은 실제로 사실이었고 그들도 그것을 알았기에 채찍이 내려올 때 그들의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 채찍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이 틀림없습시다. 나는 내가 패배자임을 압니다. 내가 그런 실패자임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는 우리를 자라게 할 그런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났을 때, 그는 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공부하기로 택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가르칠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도 건너뛰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심지어 몇 몇 계보도 읽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고린도교회의 비극은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하는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젖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도 받지 못하는 것은 3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보는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며, 이러한 암종병이 교회를 잡아먹고 파괴시킵니다. 이러한 질투, 시기, 분쟁, 분열들은 육신적인 사람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들이니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겠는가?

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적)사람이 아니리오? 그들이 작은 그룹으로 나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로 아마 교파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라, 다른 사람들은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열을 가져오는 데는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시대를 통하여 분단되었습니다. 각 교단들은 그리스도의 의 분단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비극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파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것이 유일한 참된 교파라고 느낍니다.

몇 년 전 내가 교단과 연관되어 있을 때, 그 교단의 감독이 우리가 말아 사역하려고 하는 한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는 내가 그전에 목회했던 교회와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길, 그 교회의 사람들을 당신이 지금 사역하는 교회로 데려 가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음을 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내가 목회할 때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교회를 벌써 떠났기 때문에 내가 사역하러 가는 교회로 아무도 데리고 가려는 의향은 전혀 없다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전에 주일학교 교장이었고 우리와 매우 친했던 부부도 지금은 나사렛교회에 다니지만, 심지어 그들마저도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들을 한 교단에서 다른 교단으로 옮기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인도할 때 자랍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곳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이용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역을 이용하려고도 합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만 전도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기초를 확립한 곳에 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고린도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우리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우리는 아볼로에게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은 육신적인 사람의 표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자신들을 조그만 배타적인 그룹으로 쪼개는 일입니다.

바울은 질문하기를 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단지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한 일꾼들이니라.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리고는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8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하나)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볼로와 나 사이에 분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헌신과 열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사람에게가 아니요, 사역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만 헌신하고 전념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갔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교회를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따라 바울이 심었던 곳에 물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생겼고, 고린도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일은 아볼로는 에베소에 심었으며,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말씀에 대단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경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성경말씀으로 증거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왔고, 거기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심은 것에 바울이 물을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는 우리를 심게 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이미 심어진 곳에 우리에게 물을 주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당신은 저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씨는 심어졌습니다. 만일 당신이 옮기게 되든지 또는 저들이 옮겨서 다른 이를 만나 그들과 나누게 되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씨를 심었고, 다른 사람은 당신이 심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산은,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주고, 한 사람은 거두지만, 모두 상급을 나눌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그가 아볼로와 하나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 우리는* (바울은 그 자신과 아볼로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다만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파를 만들려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자나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로 어떤 분열도 가질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십시오.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과수원, 또는 문자 그대로 갈고 경작된 밭입니다. 그 밭은 하나님께 속해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와서 심었고 아볼로는 와서 그것에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밭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교회를 묘사하는데 이 두 가지 유사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과 교제했던 곳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은 동산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작하고, 개발하고, 가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교제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분이 동산으로 비유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열매 맺는 과실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는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경작하여 더 많은 열매 맺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산의 의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동산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과실을 즐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당신은 동산에 심습니까? 그 이유는 동산의 열매를 즐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산에 오셔서 열매를 즐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시대의 말기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말씀하시길, 너희는 행위도 있고, 분별력도 있지만, 너희의 처음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너희의 처음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그분의 동산에서 사랑을 찾지 못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지 못하신다면, 그분은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이며, 그것은 희락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로 화평이 있고, 그 결과로 오래 참음과 인내와 온유와 양선을 열매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동산에 오시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헬라어로 건물을 짓는 건축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건물을 디자인하는 설계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내가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와서 터를 닦았다는 것은  $\boxtimes$ 나는 심었다 $\boxtimes$ 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블로가 와서 내가 터를 닦은 곳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 그 집의 터(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거기엔 오직 한 터(기초) 밖에 없습니다. *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교회의 터이십니다.

천주교(카톨릭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교회의 터(반석)라는 것을 마태복음 16 장 (13-18 절)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항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설을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으므로 베드로가 세워진 교회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 문맥에서 여기에 사용된 두 헬라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페트로스(petros)라고 합니다. 페트로스(petros)란 작은 조약돌이란 뜻입니다. 이 크고 단단한 페트라(Petra)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터(반석)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선언한 것처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라, 내가 터를 닦아 두었노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수년을 통하여 어떻게 지어졌는가는 참으로 흥미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가치 있는 건축 재료들 -금, 은, 보석들을 나무, 풀, 짚에 비교하면 영구적인 건축 재료들입니다.

크고 나쁜 늑대와 세 마리의 작은 돼지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한 마리는 짚으로, 다른 하나는 나무막대기로 집을 지었지만, 지혜로운 한 마리는 벽돌로 그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나쁜 늑대가 와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작은 돼지들은 용, 용, 죽겠지 놀려대며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화를 내며 흑 불어 집을 날려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늑대가 숨을 세차게 불어 짚과 나무막대기로 지은 집은 날려버렸지만 벽돌로 지은 집은 날려버릴 수가 없었다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터(반석) 위에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이 있고, 그 터 위에 감정적이고, 광적인 빈약한 재료들로 세워진 여러 가지 종류의 구조들이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오래 남지 못하는 일들을 봅니다. 그들이 단단한 터 위에 세워졌지만 값싼 재료들이었습니다. 모래가 너무 많았거나 시멘트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일들이 사람의 인간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곧 무너졌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사람의 기념비를 위한 건물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길, 너희들이 건축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13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어느 날 우리의 공력이 어떤 것인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 동기에 따라 다른 것들과 함께 그 공력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는가? 나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1-4 절) 예수께서는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의 숨은 동기가 찬양과 영예와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 그것이 너희 동기라면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다음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렸고 그것을 어떻게 드렸는가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했으며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말하기를, 아!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 또는 아! 그는 참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 말한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 교회에 목사로 갔을 때, 그 강대상 앞에 아름다운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교회 임원 중 한 사람이 우리를 점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목사님,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실수를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 그래요?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목사님께서서는 그 아름다운 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그 꽃이 매 주일마다 강대상 앞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목사님께서서는 감사의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당신들의 목사로 뽑았는데, 당신들이 누구를 뽑았는지 참으로 모르는군요. 나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목사님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아름다운 꽃은 그곳에 다시 있었습니다. 나는 역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본 마지막 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결코 어떤 압력에 의해서라든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만약 즐거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강제로나 강요에 의한 것이나 어떤 압력이나 싫지만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럴바에야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풀이나 짚입니다. 그러한 공력이 불로 시험할 때 모두 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급에 관한 한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의를 끌어 칭찬과 과찬과 존경하도록 하기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상은 벌써 여러 번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공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다 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력이 불로 시험될 그 심판의 날을 견디는, 즉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 있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공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동기로 행한 것들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말한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이 나를 조금 더 여분의 거리를 가게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을 위한 나의 큰 사랑이 나를 조금 더 일하게 합니다. 나는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어려운 일로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허락하신 것이 기쁨이요, 축복이요, 감격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불을 견딘 공력들은 상을 받고, 사람의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를 받는다는 말은 상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선물로 받아야합니다. 당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이 의롭게 행한 일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내가 있을 곳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에 나는 놀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어떤 일도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주님을 섬길 것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것이 동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력이 되고 당신은 그것으로 인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일한 사람들과 그들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들은 불에 타버릴 것이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은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옳지 않은 동기로 행했던 일들은 다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바울은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묻기를 너희가 그것을 모르느냐? 고 했습니다.

6 장에서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5 절에(고린도전서 6:15-20) 그는 말하기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너희 몸이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임을 모르느냐? 손, 발, 귀, 눈 등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가지고 창기와 합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는 외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교의 행위를 통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몸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떤 요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지 어려운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것을 정죄키 위해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가집시다. 초코렛 역시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쓸데없는데 관여한다고 할 것입니다. 콜라도 우리에게 그리 좋치 않고 실제로 우리 건강에 좋치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일관성 있게 말한다면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해야합니다. 바울이 6 장에서 같은 문맥으로 설명하고 이야기 한 더럽힌다는 것은 간음, 음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힌다고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행위에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8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바울은 이 세상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창조주 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당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세상적인 지혜로 지혜로운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어떤 면으로 미련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놀라는 것은 그들이 일단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면,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놀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박사 학위 등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당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순전한 믿음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이지만 당신은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9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성경 구절은 욥기 5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욥이 한 말에 대한 엘리바스의 응답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간교한(지혜로운) 자로 자기 궤환에 빠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구약 성경이 신약의 가르침을 위한 기초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바울, 베드로, 요한 등등 이러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완전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약을 모른다면 당신은 신약을 위한 기초가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반복하여 인용한 것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상당한 이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욥기에서 엘리바스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인용했던 책들인, 욥기, 신명기, 시편 등 그 외의 모든 성경책들 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 중 먼저 기록된 책 사이에는 약 400 년이나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에 쓴 책으로 외경이라 부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400 년의 기간 동안에 쓴 책들 중에는 역사에 관한 것과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로 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책들이 카톨릭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카톨릭교에서 영감으로 된 책으로 인정했다면 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는가요? 신약성경 전체에는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끊임없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구약에서 많은 인용을 하고 있지만 외경에서 따온 인용문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 영감된 것으로 인정되어졌다면 그들이 구약에서 인용하신 것처럼 외경에서도 인용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말씀의 거룩한 경전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신약 성경 기자들에 의해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Halley's Bible Pocket Handbook 에 ☒신약과 구약 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그마한 성경 주석으로 아주 귀한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라기 다음에 외경에 대한 개요가 조금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약을 인정하는 것처럼 외경을 영감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왜 카톨릭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66 권의 책보다 더 많은 책을 갖고 있는 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했습니다. 20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찬사와 영광을 받기 위해 일들을 합니다. 바울은 말하길,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랑하지 말며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혹은 누구에게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들을 높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줍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든, 바울의 가르침이든, 바울의 것이나, 베드로의 것이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쓰도록 사람에게 영감을 주신 분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만물은 너희 것임이라. 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런 육신에 속한 일과, 분열과, 사람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십시오!



## 고린도전서 4 장

성경 속으로 우리의 여행을 계속하면서 고린도전서 4 장을 펴실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그는 바울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여기에 일군이란 단어는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의 문자적인 뜻은 배 밑바닥에서 노 젓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데 사용했던 옛날 배들의 맨 아래층에는 노 젓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의 밑바닥에서 노 젓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배가 가지 않을 때 그들은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나를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노예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맡은 자(청지기)란 집안 일을 맡아 관리하는 종을 말했습니다. 청구서를 지불하고, 식량을 주문하며, 다른 종들이 그들의 일을 했는지를 검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이제 성령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맨 아래에서 노 젓는 자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분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청지기)로서의 첫째 요구 조건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물건들을 관리하는데 신실한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청지기 직분과, 맡겨진 일들을 잘 관리한 선한 청지기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또한 충성되지 못한 청지기들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그들은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지 못했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되어야 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바울이 말하길)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이 한 지역을 떠나면, 거기에는 항상 바울이 사역한 뒤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화 자들로, 와서는 말하길, 바울의 은혜의 메시지가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며 배교자이고, 그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율법은 매우 중요하셔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헐뜯고 중상하므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술책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자신의 자리를 확립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자리잡게 할 단 하나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다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헐뜯고 중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가져다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은 생각하기를 여기 내 자신의 자리를 확립해야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거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역자에게 매우 애착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보같이 그전 목사를 낮추고 헐뜯으면 그들 자신이 높아지는 것같이 생각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들을 더 훌륭하게 여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요, 나는 아볼로에게요, 나는 베드로에게요 라며 나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고 당신의 삶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거나,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을 대항하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당신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단에 속해 있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있는 몇 명의 십대 남자아이들을 성회롱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목사가 시무했던 교회를 말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그 곳의 보안관은 그 목사에게 그 지역을 떠난다면 그에 대한 고소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보안관을 그 목사에게 떠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목사는 그 교회를 개척하여 13 년 간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특히 그 목사와 성적으로 관련되었던 아이들의 가족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들어가는 것, 특히 그 목사를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그 목사가 그러한 일을 하리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그 목사에게 대한 엄청난 충성심이 그들 마음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저들에게 성공적으로 사역하려면 저들의 마음에 나의 자리를 만들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목사를 헐뜯지도 아니하고, 그 목사가 저지른 죄를 들추어내지도 아니하고, 그저 들어가 저들에게 사역하였습니다. 그 목사에게 충성을 다 했던 사람들이 와서는 그 목사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분을 선생으로서 크게 존경했음을 말했습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었으며, 그에 대하여 아무런 부정적인 언사를 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에 그 목사의 자리가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그 목사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헌아 하였고, 또 그들의 성장한 자녀들의 결혼을 집례했으며, 그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였었고, 그는 13년 간 그들에게 사역했습니다. 사실 그들과 가깝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13년 간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면서 매우 가까워지고, 그들의 마음에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이는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십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목사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 목사를 모욕하려 하지 않고 다만 그들의 마음과 삶에 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사역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나는 헌팅톤 비치 시에서 수년간 사역을 했었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후임자로 왔던 목사는 사람들이, 척 목사가 이것을 했고 저것도 했으며 여기에 교회를 개조하는 것을 도왔다고 했기 때문에 매우 질투를 했습니다. 그 후임 목사는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 목사는 나에게 대해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리 낮추므로 나의 위치를 세우려 해서는 안됩니다. 그저 들어가 사람들의 마음에 당신의 자리를 세우고 사역을 해나가십시오.

그래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들로 인해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며, 그것으로 방해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말하기를, 당신이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너희가 나를 판단하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노라. 나는 나를 자책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노라.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에게 대해 자책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자책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노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회원으로서의 자신의 그전 삶을 이야기 할 때, 나는 율법으로 의로워 지려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진술입니다. 바울은 특이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자책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노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므로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대한 어떠한 죄의 고발이 있다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두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심판자로서의 주님께 대해 계속 말합니다.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오나니, 그 때가 오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동안에 행한 것들 대해 보응을 받기 위해 설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심판 받게 될 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 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력이 불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공력이 불에 견디면 그들의 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구원은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참된 심판자이신 주께서 오시는 날, 모든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거나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거나 드러내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컴퓨터는 흥미로운 물건입니다. 컴퓨터로 들어가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컴퓨터로 한 모든 전화들이 기록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전화 통화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컴퓨터 안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포르노 같은 것에 다이얼을 돌린다면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지고 컴퓨터에

보관되어집니다. 컴퓨터 기인들도 따라 들어가 서류를 입수할 수 있고, 당신이 통화한 모든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정하겠지만, 여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기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책들이 퍼지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되리라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컴퓨터 보다 기록들을 더 잘 보관하십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거나 나타내질 것입니다! 그것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심판하시러 오실 때는 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것들에 대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그 본들은, 우리가 농부이거나, 건축가이거나, 일군이거나, 청지기로나이다. 바울이 본으로 사용하는 농부나 청지기들은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터 위에 세우는 건물을 귀중한 금속이거나 보석들로 짓거나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나는 바울에게요, 나는 아볼로에게요 라하며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었도다. 그럴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쓰는 것은 너희가 한 사람에게 애착을 갖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애착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해지거나 목소리를 높여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칼빈주의니 알매니안주의니 하며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학문의 결핍과 쓸데없는 것들로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당신이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그것에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하며, 모두 교만해 있습니다. 참 이러한 일들은 슬픈 일이지만 오늘날도 교회 안에 계속해서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묶여 일치될 찾기보다는 줄을 그어놓고 너는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며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협한 신앙으로 다른 면을 볼 수 없음은 참으로 슬프고도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교만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만약 나에게 어떤 귀한 것이나 재능, 은사, 지식 또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매우 잘하거나 아주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인 것처럼 그것에 대해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만해져서,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이런 저런 능력을 가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내가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당신의 것인양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빈정대듯 말합니다. **8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이것은 일종의 그들 자신에 대한 그들의 견해입니다.) -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는 부자이고, 배부르며, 왕노릇 하는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너희가 통치하게 되고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9 내가 생각전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 (또는 밑바닥에, 배 아래서 노 젓는 자들)에 **두셨으며**: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에 의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라고 부르신 것과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죽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죽기로 정해진 것과 같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를 폭스의 순교자들의 책이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서 공부해 보면, 폭스는 유세비우스로부터 그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초대 사도들을 공부해 보면,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멧은 곤봉으로 때려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멧은 불에 타 죽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목이 잘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당나귀에 매달려 그들의 뇌가 도로에 터져 나오기까지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참혹하고도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참혹한 순교의 죽음을 피한 사람은 단 한사람, 사랑하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로 부름 받는 것은 죽기로 작정된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은 가장 낮은 미말에 두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의 여흥거리로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으로

먹어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구경거리요, 여흥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10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저(Caesar)는 주(Lord)라” 선언하므로서 시저에게 충성을 표하지 아니하는 것은 로마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저를 주로 선언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계속 주장하며, 시저가 주라는 말을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불행히도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그들로 시저가 주라고 선언하기를 강요합니다. 미국에서도 점점 더 이러한 정부의 권위에 굴복하게 하는 경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시저를 주라고 선언하도록 굴복하고 복종하게 하는 법이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신자들은 그것을 선언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를 선언했기에 그들은 바보처럼 보여졌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너희 고린도인들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련한 자들이나 우리는 그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노라. 우리는 그 분을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것이나 너희는 너희의 안전을 위하여 평화협상 아래 이 세상과 의롭게 살기 위해 타협을 하려는 구나.)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가 우리를 천하게 여기고 너희 자신을 높이는구나)

**너희는 존귀하되** (너희의 관점으로) **우리는 비천하여 11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12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은 반대편에서 그를 대항하는 사람들의 거짓 고발에 대항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낀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치른 댓가들을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치른 댓가와 그가 겪었던 고초들을 고린도후서 12 장에 상당히 긴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다시금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실지로 그가 치른 댓가들을 그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까지도 주리고, 목마르며, 육신적으로 고초를 당하고, 헐벗고, 매 맞았습니다. 그는 거처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는 돌아갈 집도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나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그들에게 값없이 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과 그와 동역하는 자들을 위해 친히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하길,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악의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선하게 하라.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되 바울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핍박을 당한즉 참고:**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고 참노라.)

**13 우리가 비방을 당한즉**, 우리는 좋은 말로 달래고,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고다.**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를 미워했습니다. 바울을 미워했던 자들, 그를 헐뜯는 자들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바울을 파괴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14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러한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추악하고 흉한 말들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으면서 너희들의 의견을 형성하고 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러한 것들에 대해 너희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이라.

**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희들에게 많은 스승들이 와서 그들의 경력들을 말해 주고는, 나를 멸시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왔으며, 너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인도한 사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나의 자녀들이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교리에 유혹되어 빠지게 하는, 이러한 스승들을 모두 갖고 있다할지라도, 너희들은 오직 한 아버지만 갖고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내가 듣기로 이곳 갈보리 채플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다른 이의 가르침은 들으려고 배회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부분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방해가 되지 않지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몇몇 사람들은 돌아와서 나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묻기를, 너희는 어디서 이러한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갖고 왔는가? 성경을 읽으므로 얻었는가? 라고 하면 그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거짓을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만 읽고 결코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비뚤어진 해석을 주었을 것이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는 결코 그러한 주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뚜렷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졌으며, 어떤 이가 너에게 그런 방법으로 가르쳤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와와 증인들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은 있지만 지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에 관하여 그들을 속였고 잘못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대단한 성실성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들은 항상 말하기를 헬라어의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헬라어를 모릅니다! 헬라어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종종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말씀에 대한 그들의 해석들은 너무나 틀립니다! 예수를 천사장 미가엘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려면 요한복음 1 장과 골로새서 1 장, 히브리서 1 장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말씀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2년간 우리 책의 도움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당신은 어두움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책을 2년간 읽으면, 당신은 사실 성경이 필요치 않고 당신은 빛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지 않고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교육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진 많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 좀 봐요! 교회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 봐요. 교회에서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은 옛 농신(農神)을 경축하는 이방인들의 축제날에서 온 것이고, 이방 바벨론에서 숭배했던 것이었어요. 세상에! 교회가 당신을 속여오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들은 계몽되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프게도 어두움 속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기에 나의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그들의 성실함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판매자들로 만들어, 그들을 내 보내어 책들과 잡지들을 팔게하고, 이 사람들을 상품을 판매하는 자들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서는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일조를 강요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너희는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 거듭났고,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타락하게 할 수 있기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17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말하자면 바울의 사동(使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개인적으로 갈 수 없는 곳으로 디모데를 보내곤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굉장한 자산이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는 동안 개종되었고, 사도행전 19 장에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경우를 봅니다. 사도행전 19 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나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쓰면서(빌립보서 2: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가 그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같이 바울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고린도에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울의 삶의 원리와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확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고 주 안에서 신실한 아들입니다. 디모데가 나의 행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며,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과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방법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18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람들은 바울만 바라보며 그를 비난할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바울은 너무 교만해져서 오지 않고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면, 왜 바울 자신이 오지 않느냐? 고 합니다. 어떤 일든지 결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져서, 부하를 보낸다고 합니다.

**19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나는 너희에게로 갈 계획을 하고있다.)

여기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기를(야고보서 4:13-15), 우리는 내일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내일 이것을 하리라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말한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열려있고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틀에 박히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해도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도록 당신의 프로그램을 꼭 짜지 마십시오.

내가 야구 경기를 했을 때 나는 내야(內野)의 3 루에서 뛰었습니다. 나는 유격수와 서로 이야기하면서 타자가 나오면 우리는 대개 긴장을 풀자고 합니다. 그 뜻은 융통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공이 내야수를 통과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든 갈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움직일 준비를 하라! 굳어있지 말라. 만약 거기에 고정되어 굳은 자세로 있다면 공을 항상 수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를 갖고 느긋하면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때 공이 어디로 가든지 빨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유를 가지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완고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내일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이 전혀 생각지도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면 이것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속히 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 볼 것이 아니라(그 텅 빈말) 오직 그 능력을 알아 보겠노니. 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사람들은 그들의 온갖 헛된 말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헛된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21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갈 것인데, 내가 갈 때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이 책은 교정 서신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빨리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감동되고 그로 인해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빨리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지로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용하여 상품화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빨리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진실로 주님과 주님의 일에 있지 않고, 단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것을 가장 교묘히 이용하여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채도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났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끌어 그들을 쫓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양떼를 탈취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된 목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너희들 중에서 사람들을 끌어 그들 자신을 쫓게 하려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것에 관해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노라고 합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사역을 이루어 놓으면 바울이 떠나자마자 들어와서 바울의 사역을 파괴하고 그들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끌어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돈을 받지 않으려고 대단히 조심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바울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떠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탈취하며,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자 사람들은 바울에게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유익만을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역의 초기에 우리는 일 년에 한두 번 부흥사를 모시고 영적 부흥을 위한 특별 주간을 갖고 했습니다. 한번은 전도 집회를 잘 인도한다는 평판이 있는 부흥사를 모셨습니다. 그는 집회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연설가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미있는 농담으로 극적이면서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돈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붙여 놓아 사람들이 설탕 등 온갖 것들을 갖고 올 수 있게 했습니다. 나는 우연히 그가 거처하고 있는 집에 갔었는데, 거기서 나는 십 파운드 설탕 자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록에 설탕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처음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너무나도 새 구두 한 켤레가 필요한 거 아시지요. 주님 제 신발 사이즈가 9.5 인 것도 아시지요. 그리고 제가 까만색을 좋아하는 것도 주님 아시지요. 그 다음날 교회에 마음이

따뜻한 성도 한 분이 그에게 까만 구두 한 켤레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와서는, 보세요, 교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셨네! 내가 이 구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께 감사치 말고 가서 그것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도 당연하게 당신이 필요한 것을 사람들로 잘 알게 했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낡은 전신 녹음기를 갖고 있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부분에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테이프 녹음기가 들어오고 있을 때였고 전신 녹음기는 사라질 때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새 테이프 녹음기를 사주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이미 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 교회의 한 장로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장로에게 그의 전신 녹음기를 팔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 장로와 거래를 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그 부속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장로에게 사기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장로에게 전화를 하여 그가 당신에게 팔려는 그 전신 녹음기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며, 그 부속은 구입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 장로는 말하기를 이 젊은 목사가 부흥사가 모든 것에 다 훌륭하니까 질투가 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이 장로에게 경고를 하려는 것뿐이었는데 그는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단지 그 장로가 사려는 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임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에 그 장로는 수리를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입니다. 우리가 우리자신을 거저 줄 때에도, 종종 고맙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사역하는 도시에서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 상담자로서의 자격증을 받기 위해 특정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격증이 있는 카운셀러였기 때문에 한 시간에 50 불씩을 가정 상담하는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칠 때, 어떻게 상담하는데 시간당 50 불씩을 받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무료로 하면 사람들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담을 위해 그들이 한 시간당 50 불씩을 내야하면 그들은 그 지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돈을 받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니까 그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언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거기엔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료로 주면 그것을 항상 감사치 않습니다.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거저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하고 교묘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들에게로 유혹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충성은 바울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바울과 그의 사역에 증가된 부담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상당히 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밤낮 눈물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사역하기 원했고, 온유한 영으로 그들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만하여져서 분열을 만드는 많은 이들을 지적하여 고치러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성숙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주의 것으로 성숙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당신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군으로서 우리에게 본모습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일군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보여준 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과 감사와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고린도 전서 5장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계속 공부해 가는 가운데, 오늘은 신약에 있는 고린도전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은 5장을,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고, 비밀리에 감추어진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음란이 있었습니다. 음란은 포르네아 (Pornea)로써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습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로마법에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이 필연적으로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붓 어머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이교도인들도 그것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에서 불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그것을 묵인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2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도리어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 교만하여져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오만해 졌습니다.)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비통해 하기보다, 오히려 눈물로 통곡했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로 너희 마음이 찢어질 듯해야 마땅한데도 너희들은 관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관대함을 도리어 자랑스러이 여기는 듯 합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다 용납할 수 있고, 이런 악에 대해 관대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듯 합니다.)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이러한 악행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3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러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판단하였습니다.

**4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광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그 자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를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의 육신의 파멸을 위해 사단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디모데전서 1:20) 후메나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에게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개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믿는 자들로부터 기이한 보호하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이행해야할 기능을 가졌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귀중합니다.

바울이 12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는 몸에서부터 분리되어서는 실제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귀가 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범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강해지고 능력이 생겨납니다.

몸에서부터 분리된 사람은, 그를 감싸줄 몸의 지원이 없으므로 적에게 노출된 표적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갖는 힘으로부터 그들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또 그들이 교제로부터 끊어지므로 인해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한 최대의 영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축복 받은 사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대로 약해졌을 것이며, 만약 미국에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없었다면, 현재 상태보다 훨씬 못한 형편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이곳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향 때문에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는 국가와 약화되어가고 있는 나라의 상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합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제거되면, 모든 지옥문을 열어놓은 것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이 세상에서부터 취하여 가실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흥악한 자가 나타나 그의 거짓 능력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곧바로 그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큰 환난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최대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것이 제거될 때까지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계시된 모든 일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 후에 하나님의 대 심판, 곧 대 환난이 지구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강한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있는 사회에서 사는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힘을 얻는 교제의 가치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고무하면서 돕는 도움을 말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몸 전체가 주는 이러한 힘과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적의 공격에 훨씬 더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종류의 행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절단되어야 하고 이런 육신적 삶을 멀하게 하기 위해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합니다. 육신에 의해 지배되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공공연하게 반항하는 삶, 이런 근친상간의 관계로 육신을 따라 사는 그를, 내가 거기에 있지 않으나 내가 이미 판단하였노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가 고립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되면, 그는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를 회개하게 하고, 그가 회개하므로 다시 교제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 6:1)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것,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9절에서 언급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응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서신에서 이러한 문제를 벌써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를 다시 교제 안으로 받아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교제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고립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교제로부터 떨어져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지를 경험케 하여 회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의 궁극적인 구원, 즉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가 다시금 복원되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만약 그가 근친상간의 관계에 있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장으로 내려가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원문에는 장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단에게 내어주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가 회개하여 죄를 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교제 안으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6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너희의 자랑,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러한 죄악을 받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성경말씀에(갈라디아서 5:9),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고 합니다. 누룩을 오늘날 우리는 스타터(발효용 배양균)로 부릅니다. 효모 빵에는 그 스타터를 넣는데, 항상 반죽한 한 덩어리를 떼어놓았다가, 그것을 새 덩어리에 넣습니다. 당신이 반죽에 집어넣은 그 적은 한 스타터로 인해 냄비에 있는 반죽 전체가 발효되기까지 새 반죽 전체에 퍼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스타터를 빵 덩어리에서 빵 덩어리로 혹은 반죽에서 반죽으로 그것을 영존시키기 위해 보존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효모 빵은 49족구단의 창단 전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빵이 그렇게 유명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누룩이 퍼지는 전체과정의 부분입니다. 적은 것이 스며들어 냄비전체의 반죽으로 번져갑니다. 이것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누룩이 부패하면서 이 빵을 발효시킬 때에 내뿜는 가스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타터는 일종의 썩은 것이고, 이것이 발효하면서 가스를 뿜어내어 빵을 부풀게 하므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좋게 만듭니다. 이것은 많은 것이 요구 되는게 아닙니다. 단지 적은 스타터가 반죽 덩어리에 들어감으로서 반죽 전체에 번져갑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한 작은 죄를 허용하는 것이 온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호수아 7장) 아간의 예를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리고를 너희가 차지할 때,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약탈품은 내 것이라. 다른 도시에서 착취한 모든 약탈품은 너희가 가져도 되나 여리고의 약탈품은 나의 것이라. 너희들은 그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함락했을 때, 그 약탈품들을 레위 지파에게 가져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군들로 임명된 레위 지파에게 맡겨졌고,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작은 아이(Ai)라는 도시를 정복키 위해 언덕으로 올라가 정탐케 했습니다. 그들의 성문은 여리고의 성문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그들의 군대도 여리고의 군대보다 강하지 않았습다. 사실 여리고의 전쟁에서 승승 장부한 때라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길,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단번에 물리치고 모든 약탈품을 갖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치러 갔고 아이의 군대도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 여럿은 살해되었으며, 그들은 아이의 군대에 의해 패배하여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격분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우리를 대적케 하시나이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희 진영에 죄가 있도다. 그래서 그들은 진영의 수를 계산하여 지파대로 나아오게 하여 결국은 아간에게 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길,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자백하라. 그리하여 아간은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아간이 바벨론 의복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탐이 나서 가져다 숨겼음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모든 진영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에게 패배를 당하게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교회 안에서의 청결함을 원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안에 청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청결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사도행전 5장 1-11절).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허위를 만들어 외식하며(외식의 누룩) 나아왔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때를 위해 비밀리에 얼마를 은행에 저축하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치는 양 허위를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의 몫을 드릴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것이 네가 판 모든 것이냐? 아나니아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느니라! 그리고는 아나니아는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냐? 예, 내 땅입니다. 어느 누가 그 땅을 팔라고 했느냐? 아니오. 네가 그 땅을 팔았을 때 어느 누가 그것의 전부를 다 드리라고 했느냐? 아니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허위 보고를 만드느냐? 또한 이 계약에 함께한 그의 아내도 후에 나와와 같은 거짓을 말하니 그녀 역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의 청결함을 보호하셨습니다. 교회의 청결함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이러한 일을 참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그마한 불순이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묵인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하는 데 충분합니다.

**7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 곧 죄를 제거하라, 그래서 순수한, 누룩 없는, 아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문맥 안에서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연관짓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양이시며, 우리의 유월절이 되십니다. 이것은 누룩 없는 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2:1-30절의 유월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이르되, 이 달의 십일째 되는 날 흠 없고 일년 된 양을 취하라고 명하시고, 그것을 같은 달 십사일까지 간수하였다가,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 기둥에다 뿌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나, 만일 양쪽 문기둥과 문 윗 기둥의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Passover)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 집을 건너 넘어 그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또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모두 불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급히 그곳을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빵을 부풀게 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그냥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시종일관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던 대로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유월절 그 밤에 주께서 애굽 땅을 지나가실 때 문 설주에 피가 없는 모든 집은 그 집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땅의 객의 장자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피로 보호받지 못한 집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집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그 곳을 떠나라고 하며, 모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은 허리에 띠를 띠고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떠나 나왔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 달을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시고 그 달 십사일을 유월절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의 첫째 달의 십사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날은 무교절로 칠 일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후 곧 바로 연이어 있는 무교절과 함께 총 팔 일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칠 일간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의 첫 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각 사람이 먹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이 날은 휴식의 날, 주께 안식일이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관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카톨릭교에서는 그날을 성 금요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면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죄수들의 죽음을 서두른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은 그 안식일은 큰 날(high Sabbath)이라고 특별히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안식일,

즉 유월절 다음에 자연히 따라오는 날은 무교절의 첫 날이고, 그날은 안식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겹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큰 안식일이 금요일이었으면, 토요일은 정기적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의 첫 날 이른 아침까지 무덤에 올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날 십자가 처형이 있었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의 첫 날인 안식일이 곧 이어졌으며, 그 다음 날은 물론 정기적인 안식일 날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밤낮 사흘을 땅 속에 계셨다는 것에 맞아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답이 됩니다.

이 절기들은 그들의 자손 세대에 걸쳐 그 날들을 기념하여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존재하는 한 기억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계속해서 기억할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시 상징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죄에 노예가 되어있는 인간을 상징하고, 그들이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 침례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생활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침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며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도 편안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타국인들이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왕국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광야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보호해 주셨는지를 볼 때에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예징(豫徵)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그들의 구원은 그들이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국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나 세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의미있고 중대한 사건이 역사적인 기록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자신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유월절 양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당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장자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어린 양이 희생당한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날의 시작은 해질 때부터입니다. 그들은 해가 지자마자 새 날이 시작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달력으로는 해지는 때에 시작하여 다음 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이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겿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그 곳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후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정죄 당하셨으며,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 넘겨지셨습니다. 오전 9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거기 매달려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고, 그 날 밤과, 그 다음 날 밤과, 그 다음 날 밤까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첫째 날 새벽에 그들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이 전체가 상징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누룩, 곧 죄를 깨끗케 하시기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공동체 안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 전체에 퍼지게 되는게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도 당신의 삶 가운데 작은 죄를 허용할 때, 이것이 퍼지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단 또는 악과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씹으시고, 깨끗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씹으시고, 깨끗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케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욕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심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케 해주실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깨끗케 하신다는 개념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피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끗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제 바울은 그전에 쓴 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9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근친상간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허용하고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바울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들은 약탈(토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음 장에서 이것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술취함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쓰레기로 꼭 차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세상 조직입니다. 그런 음탕함, 음탕한 방종으로부터 당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15절)에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기도에서,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을 세상에서(악한 자)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배는 물에서 항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배가 물에서 항해를 하는 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달아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당신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 마십시오. 그전에도 언급한 것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문화적 관념으로는,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서로가 아주 귀중하고, 가깝고,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할 때 각자의 그릇과 수저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국 과 샐러드와 소오스를 공동으로 먹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갈 때면 식탁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세균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갈 때가 되면 당신이 가졌던 것을 그들도 갖고, 그들이 가졌던 것을 당신도 갖게 되어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조각의 빵을 떼어 소오스에 찍어서 한입 뜯어먹은 후 그것을 또 다시 소오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두 번 찍어 먹으면 안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 빵을 국에다 적셔서 먹고는 다시 그것을 국에 적셔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식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 까다롭다면, 당신은 최대한의 교제와 사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저들과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죄인들이요, 세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관념들을 조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것이 분열을 가져 왔고, 이것으로 인해 바울은 베드로를 꾸짖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혼자 떨어져 나와 이방인들과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열을 가져 왔습니다. 바나바도 베드로와 함께 다녔는데, 그도 이 분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그 자신을 분리시켜 혼자 떨어져 있음으로 분열을 조성하는 잘못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책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인종이나 국가적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구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참 아름답게 지적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한때 존재했던 그런 담들을 주께서 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나누고 분리시키는 담들을 그리스도께서 허셨는데, 우리가 그 담들을 다시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 연합이 있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나, 그들과는 하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먹는 교제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이런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세상을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순결의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13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나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규칙을 주지 않을뿐더러 줄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법률을 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마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되어질 않습니다. 법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사역은 법률을 통제하고 나라 안에 의를 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것이며, 그들이 회심했을 때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회심시키므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반항할 것입니다. 의(義)를 법률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심령 속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변화된 신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근친상간 관계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 관한 바울의 마지막 말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연단을 위함이지 그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죄의 열매를 경형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죄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을 돕고 붙들어 주려고 하다가 도리어 우리가 허용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같이 전혀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곤경에 빠지면 와서 옵니다.

나는 사역 초창기에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내가 아리조나 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십대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것은 이 청년에게 허락된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척 목사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차바퀴가 터져 갈고 있는데 경찰관이 다가와서는 신분증을 요구했고, 나는 무시해 버렸던 많은 주차 위반 호출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거됐고 보증이 있어야 나갈 수 있게 됐으며 50불의 벌금이 부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척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가진 것이 없었기에 어디서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굶어모아 50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를 보석금을 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 척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 세상에! 물론 젊은 청년들이 좀 책임감이 없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사태를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해 하기는 합니다만 말입니다.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종류의 전화를 자정에 또 받았습니다. 오! 척 목사님! 이번에는 제과점 트럭이었습니다. 잠그지 않은 트럭에 빵들이 너무나 맛있게 보였고, 그는 트럭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벌금이 100불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불쌍한 그를 무서운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서 밤을 지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 문제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차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구해 줌으로서 이러한 일을 계속 하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가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들의 죄의 결과로부터 구해주려는 것이 오히려 죄를 계속하도록 도와주거나, 어떤 면에서는 죄를 격려해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내가 전화만 하면 그는 나를 구제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를 교제하지 못하게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은 몸 전체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만약 그를 너희 가운데 그대로 둔다면, 그는 몸 안에 누룩이 됩니다. 그러면 곧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되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므로 괜찮은 것이라고 여기고는 방종한 태도로 교회 안에 파고들어 전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성경적인 표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하겠지만 그것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교훈을 배웠으니, 이제는 그를 교제 안으로 다시 데리고 오라, 저가 교제의 결핍으로 멸망할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것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제의 관계를 끊으므로 그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길과 당신의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부터 악을 제거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몸이 너무나 약하여져서 신체가 독을 제거할 수 없을 때, 몸은 곧 죽게될 것입니다. 몸이 매우 연약하여 신체조직이 더 이상 독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죽음은 임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임재하셔서, 누구든지 그들의 죄 가운데 와서 있는 것이 불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룩이 제거되어, 예수께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 가운데서 외식함이 없이 진실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주께서 빛을 다 갠 않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 합니다!

## 고린도전서 6 장

여러분의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6 장을 펴십시오. 첫 구절에 바울이 질문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이”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바울이 6 절에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며”라고 말한 것같이, 만약 너의 형제(다른 이)와 문제가 있으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헬라 사회는 소송하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전 생애 동안 여러 번 법정 문제에 관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당신이 고소를 당했을 때, 먼저 그 사건을 들어줄 양방의 중재인이 정해지고 또한 제 삼 중재인이 개입하여 타협적인 해결을 보도록 중재하게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여도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이번에는 배심원이 있는 법정으로 가야합니다. 그들은 배심원이 100 명이 넘는 대단히 큰 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문제의 해결점에 이르고 또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래에 와서 법적 제도의 면모가 확실히 드러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배심원 제도도 한 배심원은 한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하고, 다른 배심원은 그를 유죄라고 선언하면서, 두 배심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 상당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 제도가 최고의 상태에서도 불완전함을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다른 형제와의 문제를 불신자들의 법원에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 형제사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불신자들의 법정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결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질문하기를,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께서 심판대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천년간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데 동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것을 말한 것일 겁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았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통치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문제들을 다룰 터인데, 때때로 교회 안에서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몇몇 조그마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런 다음에 바울은 말하기를,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 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어떤 천사를 심판할 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좋은 천사를 심판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의 수호천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수호천사가 직무 나태로 어디에선가 잠을 자거나 태만해 있는게 아닌가 하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타락한 천사를 말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천사를 심판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때에는 국제적인 문제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작은 일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때는 영적인 문제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서 삼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를 법정에 데리고 가는 대신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판단할 것이라면, 얼마나 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문제들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차이점들을 판단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서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김을 받는다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자면, 실제로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가지 않고,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판단하도록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바드 대학에서 교육받지 않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든 원어를 알고 수년간의 신학대학 공부는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어떤 교수보다도 영적인 일들에는 더 나은 선생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영적인 이해를 갖게 됩니다.

헬라어에 *ginosko*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경험으로 알거나 공부하므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또 다른 헬라어 *eido* 라는 단어는 직감으로 아는 것, 성령으로부터 오는 직관이나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한 지식이나 연구를 통한 지식, 즉 *ginosko* 만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이해할 수도,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런 “학자”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런 학자들은 복음서의 어느 문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어떤 것들이 가짜이거나 복음서 저자들에게 의해 첨가된 것인지 모아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이름 뒤에 학위들을 달고 있지만, 그들은 중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론들을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문을 단지 비판적인 분석만 할뿐이며,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심지어 고등학교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성경말씀을 공부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인이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진리의 범위를 넓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송사할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그로하여금 판단케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법정으로 가지고 가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의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법정에 드러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질문하기를,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몸된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런 문제를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인 중재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재를 위한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만약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형제들 사이에 생기면,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이 변호사들이 문제를 듣고 중재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다른 견해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6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법정으로 갖고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앞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 11 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를 속이고 사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매우 소름끼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를 속이고 사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취하는 사람들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관련되었을 때, 사람들은 빠르게 그들의 영성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욕심이 그렇게 쉽사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토색(강탈)과 속이는 일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단지 사업 명함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표시가 있다고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합니다. 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이용하십시오 라고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하거나, 하나님이 형제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또 당신을 위해 기꺼이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기 쉬운



사람으로 여기고 이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뢰하라고 배워 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속이기 쉬운 대상으로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들어내 놓았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속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단지 교회에 잘 다니는 것으로 당신의 죄가 덮여질 것이라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음행 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대치하는 다른 것이 있거나, 혼외정사의 관계, 즉 간음하거나, 탐색하거나 (헬라어로 여자의 역할을 하는 동성 매춘부), 남색하거나 (헬라어로 동성연애자 또는 남자의 역할을 하는 동성 매춘부), 도둑이거나, 탐욕이 많거나, 술 취하거나, 욕설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속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그들을 권고했습니다(에베소서 5: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성도에게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 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성적 순수성의 뜻에서),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런 문제로 미혹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도 거의 같은 것들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일단 한번 거둔다면 괜찮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누구든지 이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죄인과 경건치 아니한 자가 어디 서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또 그는 이런 일로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쓰면서 속지 말라고 합니다.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도, 5 장 17 절에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역시 성적 불순을 의미)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한 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될 것에 대해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또 6 장 7 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이나, 우상 숭배나, 욕설, 즉 말로 사람들을 갈라놓거나, 말로 사람들의 명성을 파괴하며, 자신들이 하고싶은 대로하며 살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하면서 11 절에서 말하기를,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과거의 삶 속에는 더럽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씻음**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이사야 1:18)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을 모든 죄로부터 씻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으나,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중생의 씻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전 생활, 즉 옛 삶의 것들로부터 구별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여 졌습니다. 우리는 옛 것으로부터 구별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을 얻다는 말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에서 사용되었던 기구들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드릴 때 쓰였던 그 기구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있었는데, 그 기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으로 구별되었고, 그것을 어떤 다른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거룩히 구별되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육신 전체에 걸쳐 독점적인 권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유죄했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무죄하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았을 때 행했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부터 깨끗케 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모든 죄과로부터 무죄라 선언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기를, **12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끝이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은 불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산다면, 육신의 노예, 즉 그전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것들로부터 그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나에게서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과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구별되어져서, 전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은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분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았다면, 율법은 아직도 당신 위에 지배하고 있으며, 당신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때에만 당신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나를 사형으로 정죄했던 율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안에 이제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올 때까지는 아직도 율법 아래 매어 있어서 그는 율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나는 이제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에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으로 인한 나의 소망과 목적과 취지는 이 경주를 달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24 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1-2 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고 했습니다. 경주를 할 때에, 이기려고 경주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나에게 합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도 괜찮은지를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일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표를 향한 당신의 진보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나는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내가 이 목표를 향해 쫓아갈 때에 나의 진보를 방해할 어떤 것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올림픽에서 100 미터 달리를 하는데 선수로 나와서 발판에 뿔 자세를 취할 때, 크고 무거운 장화를 신고 나왔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아마도 그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거운 장화를 신고는 경주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경주에서 당신이 이루려하는 승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용납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경주를 달리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자유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자유에 관해서는 그것보다 더한 자유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때 우리의 욕신과 육적인 욕망에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신을 미워하지만, 그것은 욕신의 연약함으로 인한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욕신이 연약함이다! 나는 그들이 증오하는 활동에 속박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말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고 욕신의 힘 때문에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는 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누가 나를 견제내랴?”하며 외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직도 육적인 욕망과 충동에 묶여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나를 견제내랴? 라며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 밖에서 오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 삶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욕신의 종노릇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영광스러운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의 욕신과 육적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지배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의 자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면으로 다시금 그 자신을 속박 아래 놓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여 담배 피우기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내가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나는 더 이상 자유하지 못하고, 이제 나는 이 작은 담배에 노예가 됩니다. 내가 나의 자유를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여 나를 다시 종노릇하게 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졌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제외하고, 그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었습니다. 그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단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는 종이되고,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 모퉁이에 묶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나무 주위에 높은 담을 세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자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망을 가져오게 하고 죄와 욕신에게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그의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보다 육체의 욕망을 따랐을 때, 그는 그의 욕신의 피해자가 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즐길 것이고, 나를 지배아래 있게 하는 어떤 활동에 나 자신을 참여시키거나 받아드리게 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 어떤 종류의 활동에 지배받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자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13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이것은 아마도 고린도에 있는 속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속담으로 그들은 말하기를, 음식은 배를 위해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있기에 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에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폐하시리라** 합니다. 이런 먹고 하는 것들은 단지 일시적인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몸은**, 그는 말하기를, **음란을 위하지 않고** (그들은 아마도 그 속담을 육체적 음란에까지 비추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하자면, 하나님께서 정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적충동을 창조하셨으며, 음식은 배를 위해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성적 기관들을 창조하셨으므로 이것들은 성행위를 위함이라고 하며 이 속담을 음란의 영역에까지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적 능력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몸은)**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14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리신 것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특별히 지체, 즉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지체를 불의를 위한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의 몸,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양도해드리고, 당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는데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내 몸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주님을 위한 도구로 내 몸을 드러야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몸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16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지체를 가지고 창기 혹은 매춘부와 연합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 관계 안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런 성적 연합에 관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런 관계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18 음행을 피하라.** 우리가 도덕적 순결한 삶을 살려고 마음에 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는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그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그의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나의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결코 음행을 범하지 않으리라! 당신이 결심해야할 때는 당신 앞에 벌거벗은 여자가 서 있을 때, 할까? 말까? 하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이미 오래 전에 했어야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결정된 일입니다.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내가 음란을 범치 않으리라고 결심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 전에 미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의 몸에 관한 이러한 것은 우리의 전체 사고과정의 한 부분이 되어야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종류의 경건치 않은 관계로 그리스도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우리는 구약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확고히 하고 결심했는지를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리이까? 다른 사람들은 할지 몰라도, 어찌 내가 할 수 있던 말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사람이고, 내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어찌 이런 악을 행하겠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요셉을 잡고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려 했지만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썼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것은 몸 밖에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것은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나? 그것을 볼 수 없느냐? 고 합니다.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이제 성령의 전이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였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이 찢려 들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실수해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길, 너희가 회개하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이니까 내가 하고싶은 대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임신 중절 합법화 지지자들이 하는 소리들이 아닙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글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구속함을 받았으며,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때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힌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길 잃고, 노예 되었던 상태에서 구속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이것으로 인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주님은 파멸과, 죽음과, 비참함과 방종의 옛 삶으로부터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신중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몸은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의 의무요 나의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그의 몸 안에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몸 안에서 사는 동안, 나는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각자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자기 기만에 대하여 성경말씀에 반복하여 경고되어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여겨지므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우리 몸은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고린도 전서 7 장

우리가 성경전체를 계속 공부해 가는 가운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7 장을 펴십시오.

우리가 7 장을 공부하기 전에, 바울이 여기 7 장에 쓴 것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결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한 편지를 받고 그것에 대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매우 관능적인 도시였고 방탕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야만적이고 거친 삶을 살았다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고린도인 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온갖 음란과 악한 행위로 차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언덕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위한 대 신전이 지어졌습니다. 거기엔 천 명이 넘는 여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프로디테에게 헌신된 거룩하고 신성한 노예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밤에 고린도 도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과 부도덕한 행위의 지속적인 유혹과 유용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고린도 도시에 만연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로마에 의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의 장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지에 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7 장의 배경이며, 바울은 그가 받은 편지에서 그들이 한 질문에 관해 답장을 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1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독신생활을 의미합니다.

**2 음행의 연고로(음란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가 부부로서의 의무 행하기를 억제하지 마십시오.

**4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에게 성적 특권을 행하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합방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당신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6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권면이지 명령이 아님) **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가 나처럼 독신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은사라. 만일 너희가 독신으로 사는 은사가 없다면 시도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각기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12 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연유로 된 고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격은 어렵고 힘든 여행을 만약 그가 결혼을 했더라면 그가 이루었던 일들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바울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는 그가 결혼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독신의 은사를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8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약에 당신이 독신의 은사가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불타는 정욕과 욕망으로 다니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에 대해 과부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자들을 다룰 때, 만약 그것이 받은 은사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계속적인 성욕을 갖게 되면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10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흥미로운 것은 이것의 대부분이 바울 자신의 충고이지만, 7 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그것이 비록 그의 견해일지라도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고 확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말할 때, 만약 우리가 강한 성경말씀이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권위를 갖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견해를 말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진리이다”라는 인상을 주지 말고, “나의 견해”로 표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견해를 가지고, 또 우리의 견해를 표현할 때에,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내가 말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주의 명령이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여자는 그녀의 남편과 이혼치 말라) **11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일부일처제로 작정 하셨고 이것이 사는 동안에 계속 되어지기를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일생 동안 결혼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수훈에서(마태복음 5:31-32),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이와 결혼을 하면 그들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과 양립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서는(신명기 24:1-4), 어떤 남자가 어느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에게 어떤 부정한 일을 발견하면,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이혼을 허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녀에게서 부정한 일을 발견하면”이라는 문구에 관하여 두 가지 관념의 학파가 있습니다. 한 학파는 이 부정함을 도덕적인 불결이라고 생각하였고, 다른 학파는 남편이 그녀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요리를 싫어해도 이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개방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왔습니다(마태복음 19:3-9).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께서 모세가 말한 것에 상반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낳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저들은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과 대조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그들이 하려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누구든지 이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그녀와 함께 간음함이니라. 그들은 예수께서 와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그의 아내를 버릴 수가 있냐? 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반복해서 가르치시기를, 만약 사람이 음행한 연고 없이 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사람은 여자로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함정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였느냐? 고 했습니다. (그들 생각에 아하! 이제 걸려들었구나! 모세가 말한 것에 반대되는 말을 했으니 말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를 주라고는 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본래 목적으로 가십니다(창세기 2:23-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헤어지더라도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2 그 남은 사람들에게(나머지 입장의 일들에 대해)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요 나의 충고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13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것은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나이가 되기 전에 죽은 자녀들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아내든 믿는 남편이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그들의 자녀에게 보호막이나 피난처가 되어, 한 사람이든 둘 다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이 경우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이 깨끗지 못할 것이지만, 그들은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장래에 미칠 영향, 즉 경건한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세상을 따라 사는 삶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문제는, 그들의 자녀들이 경건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여서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일어나더라도 그들의 자녀들이 보호되어지고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 지를 모르는 물음표의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 그의 믿는 아내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1 절에서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의 문제에 관해 씁니다. 아내의 사랑과 그녀의 의로운 삶으로 인해 그녀의 남편이 구원을 얻게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15**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 받을 것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당신은 신자인데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신자가 아닐 때, 그 상대방이 당신의 종교와 당신이 성경책 읽는 것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이렇게 더 이상 살수 없다고 하면 갈라지십시오.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 구속 아래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까지 비약할 수 있는가는 견해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상대방과 사는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거기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맺은 서약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므로 당신이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 해석되어지는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들이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개심할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사실 문자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례한 자가 무할례로 할 수 있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 당신이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그 율법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율법에 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십시오. 확신하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는 그들의 유대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준비한 정결한 음식인 코셔를 먹는 일과 그러한 것들을 지키려는 열성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고, 율법아래 살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켰다면, 그러한 율법과 의식 등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받으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 신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로 초대 교회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사도행전 15 장)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회의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바울의 의견에 찬성을 표하는 결정을 내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율법의 예식과 음식에 관한 부분은 율법아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과격한 변화가 있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이 할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20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계속적으로 속이면서 자유롭게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차라리 사용하라.**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자유로와 지십시오. 그러나 종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자유합니다! 비록 당신이 종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주께 속한 자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이것을 세 번씩이나 언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되려하거나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되려는 이런 과격한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종이라면 자유롭게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저 거기에 계십시오. 그의 부르심에 그대로 사십시오.

**25 처녀에 대하여는** (이제 바울은 결혼한 것에서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갑니다): (그가 인정하기를)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26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내가 언급한 대로 이 때는 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의 위협이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이것에 대한 약간의 시작의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박한 환난의 때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다른 말로하자면, 만약 당신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당신이 순교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자, 그렇게 된다면 결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키기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일이 힘들어질 것이며, 우리의 장래가 단축되어질 것입니다. 잠시 후에 바울이 말하겠지만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29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우리의 장래가 단축되어졌습니다) **이 후부터는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것은 전후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32 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단축되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당신이 결혼을 했다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30 우리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우리는 슬픔에 빠질 시간이 없을뿐더러 기쁨에 빠질 시간도 없습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세상의 물질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려는데 휩쓸려 물질이 당신을 소유하지 않게 하십시오.

**31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에 가능하면 가볍게 접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히브리서 12:1-2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는 거추장스럽고, 필요 없는 것들과, 많은 방해물들을 지닐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십시오.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며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방해물들을 제거하십시오.

**32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들이 예수님을 위해 맺는 사람들의 열매를 질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 일에도 마음 졸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사귀고 싶어할 그런 걱정이 없고 태평스러웠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참으로 재미가 있었고 항상 농담을 잘 하였으며 익살스러웠습니다. 그의 옆에 있으면 즐거운

친구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매우 성공하여 그는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더 이상 걱정이 없는 재미있는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한 밤 중에 거리를 헤매며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한 두 시에 거리를 걷고 있는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쌓은 재물과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너무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과 그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길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재물에 대해 너무나 걱정을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심장 마비로 죽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소유하면,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들이 너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바울은 말하기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33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34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35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울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데 오직 한 가지 목적인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음을 인하여 독신 생활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너희가 결혼을 하였으면, 주를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이 있다해도, 너희의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하노라.

**36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다른 말로 주를 위해 살려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거나 맹세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1970 년대에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청년들이 모여서 “휴거 때까지 독신”이란 클럽을 조직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독신으로 살면서 그냥 나가서 주를 섬기며, 자유롭게 여행하며,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휴거 때까지 독신으로 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클럽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알기론 남은 회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 너희가 독신의 삶을 살수가 없거든, 괜찮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목격한 것처럼 대단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37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휴거 때까지 독신”하기로 마음을 굳히면) 부득이한 일도 없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강한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38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 나는 그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의견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내 의견이 있습니다.)

**39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40 그러나 내 뜻에는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니라**(이것은 바울의 판단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바울은 독신 생활을 수용할 수 있거나, 독신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독신으로 살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념은 더 큰 자유와 이동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사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합니다. 나는 전국을 횡단하며 다녔습니다. 내가 미주리 주를 향해 떠났을 때 나의 차에는 살구 한 봉지를 갖고 갔습니다. 단지 그것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밤에는 길옆에 차를 세우고는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는 다시 운전을 계속 했습니다. 식당에 멈출 것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이 여행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내가 아내와 결혼을 한 후, 그때 우리는 아리조나 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주로 다시 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배가 고프니 커피 한 잔을 마시기를 원한다고 넌지시 비추었습니다. 나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서 멈추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시간이 더 지체될텐데! 그렇지만 나는 멈추었습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7 장에 있는,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란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한 부부든, 독신자들이든,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충고와 교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과, 독신생활과, 주님을 섬기는 일 등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아주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그 충고와 조언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일 주께서 부르시고 독신의 은사가 주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자유를 잘 사용케 하옵소서. 독신으로서 그들에게 허락된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종이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 결혼한 자들은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돌봄과, 사랑과, 관심과, 존경과, 자비심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들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므로 인해 저들의 배우자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고린도전서 8장

성경 속으로 우리의 여행을 계속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을 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분열되는 것은 항상 슬픈 일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의 일들에 관해 말하면서, 날마다 그가 모든 교회의 일들은 보살피는 것 이외에, 그가 갖는 압박감과, 여러 가지 경험과 어려움들을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 등, 문제에 대한 소식은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공부할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의 남용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15장에서 다름 부활에 관한 혼합된 가르침과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하여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열들은 육신적임을 표시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성찬식의 남용이 있었으며, 바울은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분열이 있었는데, 그것을 8장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이 생긴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느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모든 활동에 대해 일일이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경에 어느 곳에서도 영화를 보러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곳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것은 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식사와 함께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피자를 먹을 때 맥주를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독일과 모든 유럽의 경우, 교회에서 맥주 파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자유함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죄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항상 분열을 일으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중 바닷가에 가는 것은 상당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이것에 대해 전혀 죄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 서로 강한 다른 의견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서로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야 합니까?

그래서 어떤 이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전했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조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답장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로마서 14장) 말하기를,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기를 먹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으라. 그러나 고기를 먹는 자는 채소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채소 먹는 자는 고기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 신전에 있는 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한 이방 신에게 바치려고 이방 신전에 있는 사제들에게 가져갔을 때, 양의 한 부분은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고, 다른 한 부분은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의 한 부분은 제물을 바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제들은 하루에도 여러번 제물을 바쳤으므로, 그 때마다 그에게 주어진 부분은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았으므로, 그는 그 여분의 고기를 정육점에다 팔곤 했습니다. 정육점에서는 이 고기를 다른 고기들과 함께 팔게 되었습니다. 보통 고기를 끈으로 메달아 놓고 그런 상태에서 베어 팔았습니다. 10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갔을 때, 너희가 원하는 좋은 부위가 보이면, 고깃간 주인에게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지를 묻지 말고, 그냥 사 가지고 집에 가서 즐기라고 했습니다. 너희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그가 그날 아침에 신전에서 갖고 온 것이라고 한 것을 사 갖고 와서 먹었을 때 양심의 가책으로 그는 괴로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에 가책을 느껴, 오! 내가 배탈이 났네, 틀림없이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먹어서 그럴거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을 식사에 초대하고 식탁에 고기가 있거든, 당신 앞에 차려진 음식을 양심을 위하여 아무 것도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10장에서 다룰 것이고, 여기 8장에서는,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야기된 분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은 아무 것도 아닌 단지 대리석이나, 돌이나, 또는 아마도 나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지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 것도 아니고 실존하지도 않는 신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들이 숭배하는 이러한 신들은 전혀 신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은 단지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바쳤던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주 있습니다. 대학교 등에 대해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는 이러한 단체들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적 속물 근성입니다. 이러한 단체에 가보기만 하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매우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2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르느니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매우 무지한 불쌍한 사람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가장 적게 압니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모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 의해 증가되는 어마어마한 지식과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통신 과학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축적되어진 지식은 너무나도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때에서부터 1965년도까지 모든 축적된 지식, 과학 등 모든 지식, 즉 사람들이 이 기간동안 축적한 지식이, 그 다음 10년간 두 배가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단지 10년 사이에 축적된 인간의 지식이 갑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지식이 5년 안에 두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들은 10년 안에 알 것에 단지 5%만 아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벨탑의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들이 이 최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할 당시 그들의 증가된 지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인해 아무 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은 옳은 목적을 위해 그들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메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볼 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로 너무나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또한 너무나 악한 것을 알 기회가 있습니다. 좋고 훌륭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생각을 오염으로 채우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인터넷의 가능성에 대해 흥분돼 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채플 웹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로 들어와 5000시리즈의 성경 주석을 꺼내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를 일본에서 실황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우리 갈보리 채플 웹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듣는 사람들로 부터 편지들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들도 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정말이지 굉장한 과학 기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CD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 전체의 주석인, 5000시리즈 전체를 4개의 CD에 담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중국으로 밀수입하는 것보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방에 CD를 잔뜩 갖고 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가르침과 주석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곧 CD에 그것을 담아 그들에게 전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학 기술 즉, 지식이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볼 때 참으로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이다호 주 트윈 폴스 시에 전선으로 전해져서, 거기서 우주 공간에 약 53,000마일 떨어진 위성으로 전파가 발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성으로부터 전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송신기들로 다시 유도되어 내려옵니다. 지금 위성으로부터 이 방송을 포착하는 방송국이 5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여기서 말씀 공부하는 동안, 미국 전역에서도 다이얼을 맞추어 우리가 여기서 성경공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과학 기술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악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 너무 많이 보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마음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들을 얻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식, 그것은 교만케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10년 후엔 우리가 알게 될 것이나 지금까지 발견되어진 막대한 지식의 증가에 비교하여 당신은 아무 것도 모를 것입니다.

**3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알려진바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당신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갖고 있고 획득한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에 비해 물동이에 물 한 방울만큼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全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과학을 알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그것들을 발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따라 미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해서, 5년마다 두 배로 영원토록 늘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문제를 꺼냅니다. **4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우리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여러 이방 신들과, 여러 신들을 위해 지은 큰 신전들이 아무 것도 아님을 압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유일신인 하나님을 전파했는데, 매우 다신교적이었던 이 때의 서양 사회 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사도행전 19:23-41),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소동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업이 저조해진 연고로 다른 사람들을 요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은장색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아데미의 이 작은 우상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작은 우상들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자를 그냥 두면 우리의 사업이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걱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형상과 우상은 실제로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우상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단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했습니다.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알며, 이것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신들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서(1:15-29)에서 주장한 것은,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그 안에 함께 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7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우상들 안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또 이 신들은 작은 신들로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 뒤에 어떤 불길한 것이 있다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것에 대해 확인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예배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귀신학과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신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악령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만약 그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다면 그들은 양심에 가책을 느낍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숭배되고 있는 우상에는 무언가 있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8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다른 말로하자면,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과 나의 실제 관계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영적으로 더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땅콩 대신 알몬드를 먹는다고 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으로 영적이거나 영적이지 않다고 구분하지 않으며, 먹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 땅콩 대신 알몬드를 먹는 착하고 의로운 아이를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내가 그것은 그렇다고 믿지 않는 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이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목사님의 교회에 나오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며, 저녁에 집에 올 때는 지속적인 긴장감 안에 있게 되고, 감정도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앉아 맥주를 마셔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긴장을 풀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저녁에 집에 가서 숨을 돌리기 위해서 맥주가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긴장을 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청년을 놀라게 해주리라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당신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맥주를 마실 수 없다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맥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입을 벌린 채 다물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것은 그가 사용하는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핑계 거리를 갑자기 없애 버린 것입니다. 그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았습다. 그 이유는 저녁에 퇴근했을 때 맥주를 즐긴다는 사실보다도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맥주를 마시면 그들의 양심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를 덜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믿음 때문이지, 내가 무엇을 먹고, 안먹고 혹은 무엇을 마시고, 안마시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음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 먼저 내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나는 술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다 마실 수 있으나 나는 술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은 원하는 대로 술을 마신다고 하면서 소문을 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척 목사가 물고기처럼 술을 잘 마신다. 오! 절대 아닙니다. 사실 나는 오래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께서는 나를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 위해 말하는 것은, 나의 일생동안 결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술을 시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9그런즉 너희 자유함이**(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유)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우상에게 바쳐진 것임을 알고 먹었다면, 그것으로 근심하게 되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앞에서도 말한 것같이, 만약 당신이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당신의 믿음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그들은 가망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담배를 피우면서도, 시가나 파이프를 피우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냄새는 나겠지만,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이 교회의 회원이든, 혹은 교회 안내인이든, 또는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 당신이 크고 오래된 시가를 물고 거리를 활주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지식 즉 나는 자유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10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여다보니, 우상의 신전에 앉아, 분명히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있는 당신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하던 당신이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을 본다면, 그의 양심이 대담해질 것이고, 당신이 하니, 나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주시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당신이 중책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사람들은 유심히 바라봅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자유를 사용할 때, 나는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노라. 우상이 무엇인데?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신이 갖고 있는 이해력을 갖고 있지 않기에, 그들의 양심에 근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책을 느끼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죄책감과 정죄감을 이용하여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11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까?

**12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실상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6; 마가복음 9:42; 누가복음 12:2)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고린도전서 6:12절에서 폭넓은 진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지만 만약 그것이 악한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그 자유를 행치 말아야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는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13그러므로 (결론으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사랑은 덕을 세우고, 사랑은 서로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한 관심보다는 내가 갖는 자유함으로 인해 실족 당할 수 있는 악한 형제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때를 만난 좋은 규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나의 삶에 규율로 삼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세밀히 보고 있기에,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상 의식하며 매우 조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현 차를 삽니다. 내가 새 차를 사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어떤 사람이 이것으로 실족케 될까봐서입니다. 오! 목사님이 새 차 사셨네! 나도 새 차를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현 차를 삽니다. 그것이 나를 기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차는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갖고 있는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악한 양심을 갖고 있어서, 당신의 그 자유함으로 인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자유를 당신 자신만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자신만 생각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가? 이것이 그들을 실족케 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로 죄 짓게 할 것인가? 만약 이것이 악한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며, 나는 그들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지, 그들을 멸망케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유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과 죄의 능력에서 해방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그렇게 큰 해방과 그렇게 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데 조심하여, 악한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고린도전서 9 장

고린도전서 9 장을 펴십시오. 바울은 답을 기대하지 않는 설득력 있는 질문들을 연이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라 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 당시에 사도가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의 사도직에 대해 말했을 때,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고 했습니다. 또 사도들은 그들의 삶과 기도를 통해 거의 대부분 기적의 역사들을 보이므로 그들이 사도인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 중에서 행한 일들이 그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2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들이 사도직에 대한 나의 증인들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나의 살아있는 사도서신들입니다. 거기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의 믿음으로, 비록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거기에 있을 동안에 행했던 일은 명백히 나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에게 하는 나의 대답은, **3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고린도로부터 바울이 받은 편지에는 분명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몇 사람이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일은 안수함으로 사도직 계승을 전하는 교리나 전통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카톨릭 교회나 에피스코폴 교회가 이것을 큰 문제거리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을 성직자로 임명할 때, 주교들이나 장로들이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에게 안수한 그 주교는 그의 주교에게 안수 받았으며, 또한 그 주교는 그의 주교에게 안수 받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안수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 계승의 안수는 도미노와 같은 연쇄 반응처럼 거슬러 베드로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계승이 베드로에게서부터 당신에게까지 내려온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기름부음이 베드로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묻기를, 누가 당신에게 사역하도록 권위를 주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몰몬교 사람들은 오직 그들만이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만이 참된 교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도 12 사도들이 없는데, 그들은 12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도들만이 교회의 성찬을 집례할 사람을 안수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몰몬교의 12 사도들에 의해 안수 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도 세례를 줄 자격도 없고 교회의 성찬을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도 계승의 안수를 크게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항상, 누가 이러한 것을 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가 교회의 성찬을 집례하도록 떡을 떼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나에게 흥미로운 것은 요단강에서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질문을 요한에게 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침례를 줄 권한을 주었느냐? 그들은 또한 예수께 묻기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나의 대답도 요한과 예수님과 같이 누구도 아닌 주님이시라!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사도가 되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바울의 대답은, **4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사역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5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박와 같이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 갈 때는 그들의 아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들에게 온 사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와 그의 아내, 둘 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와 같이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습니까? 주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유다, 그들 역시 초대 교회에

사도들이었습니다. 물론 게바, 즉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며, 결혼하여 아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에 의해 보살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6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다른 말로 우리는 사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행하고 있는데, 다른 사도들이 사역하는데서 지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원을 받을 권한이 없겠습니까?

**7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누가 그 자신을 위해 돈을 내겠느냐? 군대에 가면 전쟁에 임하도록 모든 훈련을 받는데 정부에서 다 지불합니다. 군에 입대한 후 신병 훈련과, 상병 훈련 등을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군인이거나 해병이거나 공군이라는 사실로 다 해결되어집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대생활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았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군이 그 삿을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당신이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다면 그 포도원의 열매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양떼나 염소떼를 기른다면, 당신은 그 염소의 젖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8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밀알을 타작할 때에 그들은 타작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밀을 편편한 바위 위에 놓고 이 기구를 소의 뒤에 묶어 소로 하여금 그 기계를 끌면서 왔다 갔다 하게 함으로 밀의 껍질이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는 밖에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는 그 밀의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나?** 하나님께서 단지 소들만 보살피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들이 사람보다 더 중요합니까?

**10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바울은 자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다른 말로, 너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너희는 소망이 있습니다.)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11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꾀하다 하겠느냐?** 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며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심었은즉,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이것을 지나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돌보아 주는 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12 다른 이들도** (다른 사도들,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모두들)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다시 말하자면, 내가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지원키 위해 돈을 보낸다면 나 역시 너희들에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바울은, 너희가 나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 권리를 사용치 않았습니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13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역할 때, 사람들이 제사장들에 의해 드러질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은 태워지고, 그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성전에서 진설병을 진열했을 때, 그 드러진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의 일들을 했지만 그들은 제단에 드러졌던 것들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일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만약 당신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면 그 교회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15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증명하는 것은 나를 지원해 주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원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그에 대하여 잘못 말해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이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로부터 5 전 동전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수고를 위해 너희들에게 하나도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로부터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에게 거저 주러 왔으며, 성기러 왔지 성금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보면 항상 지원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역들에 대하여 들 때마다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의 편지와 미리 주소를 적은 봉투를 함께 보냅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의 후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의해 지원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역은 성기려하고 후원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보조하는 것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고 자유로이 너희에게 성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면에서 나는 바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값없이 성길 수 있고 사역을 지원하는데 대해 여러분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아도 됨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바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들을 성길 수 있고 우리의 지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됨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아무 것도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하나님)는 굉장한 부자이십니다. 그 분은 나를 잘 돌보아 주십니다. 그 분을 성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매우 자유롭게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안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압력을 주거나 나를 도와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는 더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갈보리 채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17년 간 바울처럼 나는 가족을 부양키 위해 내 두 손으로 일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갈보리 채플을 시작했을 때 처음 2년간은 가족의 쓸 것을 채우기 위해 교회 밖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고,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 일을 하도록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역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동안 나는 가족을 부양키 위해 온갖 일들을 다했습니다.

나는 장례회관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필요할 때 첫째로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장의사에서 허드레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독창 부르는 자가 필요할 때 나는 노래를 불렀으며, 설교자가 필요할 땐 설교를 했고, 화관 차를 운전했습니다, 가정용 차도 운전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밤 중에 나가 시체를 가지고 와야 했고 나는 시체 하나 당 5불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화가 필요했을 때, 종종 한 밤 중에 전화를 받고 시체를 가지러 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주님! 우리 아이의 운동화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차 사고가 일어나 나는 서너 시체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때는 우리는 정말 부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허락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방법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쉽게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척 스미스는 월급도 많이 받고 보험도 좋으니 누군들 그 사역하기를 싫어하겠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역의 반 정도는 나는 가족의 필요를 공급키 위해 일을 했어야 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내가 당연히 하여야 할 책임을 다했고, 아무도 내가 살기 위하여 주를 섬긴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바울은 그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광도 아니요, 만일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러므로 바울에게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특별히 즐겼던 어떤 것이 아닌 그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부득불 한 것이었습니다.

**18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바울은 사도로서 지원을 받을 권리와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값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값 없이 줍니다! 나는 그것이 참 좋습니다!

**19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이 말은, 나의 생계를 위해 사람들을 의존치 않고,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지를 압니다. 나는 나의 생계를 위해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메이지 않았습니! 그는 사람들이 그를 지원함으로 인한 어떤 메임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 했습니다. 바울의 최고의 갈망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도록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0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엄격한 유대 율법에 따른 음식물인 코셔(Kosher)를 지킬 수 있었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안식일 음식법을 따랐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유대교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즉,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도덕상의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십계명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 남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 법을 따라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그가 먹는 것이 율법에 의해 구별된 음식인지(Kosher) 아닌지를 생각지 않고 무엇을 먹든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그들의 슬어를 말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과 동일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종이 되어 나를 여러 환경에 적응시킴은,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을 얻고자하는 갈망 때문이라.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함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리라!

**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보스톤 마라톤 대회 시작은 불만합니다.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날 때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경주를 끝낼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는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쓰여진 티-셔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쉽사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은 겨우 몇 마일만을 달리고는 떨어져 나와서 티-셔츠를 받아 입습니다. 수 천 명으로 시작된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는 다만 한 사람만의 우승자가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가장 열심히 훈련하고, 그 자신을 전폭적으로 헌신한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경기를 시작할 때 그 마음에 우승 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경기를 위해서 그 자신을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할 동안 그는 이 경기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들리는 날, 경기가 시작되는 날, 나는 이길 것이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몸에 가해진 모든 훈련과, 운동과, 단련과 고통, 즉 아플 때까지 달리고 또 아픔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달려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을 때까지 달리고 난 후,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달렸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의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한 것은 이기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하자면, 그리스도인의 행함,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경주는 하지만, 경기에 이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훈련이나 단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기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그만 낙심에 그 경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이 경주를 달리기 위해 얼마만큼 희생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바울이 앞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별도의 짐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과정을 거쳐 올림픽 경기에서 100 미터 경주를 뛰게 되어, 경기 준비자세를 취하는 곳에 카우보이 구두를 신고 나왔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카우보이 장화를 신고는 뭘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가볍고도 경기용 스파이크가 있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견인력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한 한 가장 가벼운 것을 원할 것입니다. 단지 13 온스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경주용 신발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연히 무거운 외투나 가방을 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리는 데 온갖 쓰레기 짐들을 신고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경주를 온갖 짐들을 잔뜩 신고 달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즉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말하기를, (빌립보서 3:14) 나는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기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기도록 달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주에서 뛰지만 오직 한 사람 만이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기도록 달리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달리십시오.

**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 '이기다'로 번역된 단어는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수위(首位), 우승'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씨름을 위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올림픽 경기는 그리스 올림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주 운동에 관련한 유사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스포츠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사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바울이 스포츠에 관해 익히 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올림픽에서 씨름을 위해 훈련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에 절제를 해야합니다. 그



말은, 그들은 많은 희생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에 조심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몸무게를 조종키 위해 엄격한 훈련을 해야하고 상당한 시련을 겪어야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 당시 올림픽에서, 만약 당신이 올림픽 씨름 대회에서 이겼다면, 당신은 올림픽 챔피언으로서 명예와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유명인이 되었을 것이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 와!’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올림픽 챔피언으로서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을 받기 위해 심판대 앞에 나오면, 그것은 재정적인 상이 아닌, 월계수 화관이거나 소나무 가지로 엮은 화관을 당신의 머리에 얹어줍니다. 겨우 소나무 화관을 머리에 받으려고 그 모든 고통과 훈련과 단련을 한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를, 그들이 단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 모든 훈련을 기꺼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초록 소나무 가지로 만든 면류관은 얼마 가지 않아 갈색으로 변할 것이고, 그 소나무 침엽은 곧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나무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 모든 운동과 훈련과 희생을 감수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들이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훈련을 기꺼이 해야하겠습니까?

이길도록 달리십시오! 우승하기 위해 이 경주에 들어오십시오. 우승자가 되는데 필요한 희생을 기꺼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고를 할 것이고, 우리는 달릴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즉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십니다.

바울이 그의 경주를 거의 끝낼 무렵, 그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써서 말하기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그는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받기를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26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것은, 바울은 우승하려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달리다가 피곤하고 힘들면 그만 두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경주에 이길 것이고, 나는 있는 힘을 다 해 할 것이다! 나는 이 경주에 나의 전심전력을 다하리라!

그러므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림자를 치는 권투 선수처럼 하지 아니하고)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말은, 나는 단련된 삶을 살고,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는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의 승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데,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싸우고, 당신을 지배하려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육신과 육적 욕심에 의해 지배되어 지거나 아니면 성령과 당신의 영적 소욕에 의해 지배되어집니다.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고 지배되든지 아니면 육에 의해 다스려지고 지배됩니다. 그것은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지속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내가 육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것들로 내 자신을 충족시키며 육신을 위해 살 것인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훈련을 시종일관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므로 영적 훈련을 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성경을 읽는데 훈련되지 않았고, 또 그들의 기도 생활도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얻으려고 하고 그저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머리 위에 앉아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육신의 정욕에 지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애를 지배합니다. 육신에 의해 지배될 때 당신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즉 항상 육신이 원하는 것에 관한 것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은 육신의 욕망에 의해 지배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육체적 욕구, 즉 몸이 원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영도 역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내 영이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일들, 즉 하나님과 나와와 관계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의 조언과 충고를 구하며, 주님의 교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실 때, 나는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사랑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훈련시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몸을 복종 아래 두기 위해 사실상 몸을 쳐 그의 몸을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몸과 진짜 싸웁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실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도록 몸을 쳐 복종하도록 훈련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복음을 전파한 후, 만약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하도록 한다면 나는 버려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헬라어로 adokimos 란 '인정되다'란 뜻입니다. 신약에서 여러 곳에 이 adokimos 란 단어는 인정되다로 번역되어졌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입니다. dokimos 앞에 "a" 자를 붙이면 부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영어에 non 접두사를 부치므로 부정문을 만들 듯이 헬라어에는 a 가 부정 접두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theos 는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a 가 붙으므로 atheos, 곧 (atheist)무신론자가 됩니다. gnosko 는 안다는 뜻입니다. 그 안다는 gnosko 앞에 a 를 부쳐 agnosko 곧 알지 못한다가 됩니다. 것처럼 인정되다의 dokimos 앞에 a 를 붙이면, 인정받지 못하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경주에서 실격이 될까 혹은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중대한 것이었고, 또 바울은 그것에 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한 헌신으로, 그는 그저 놀러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돈을 위해 이 일을 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의 자신의 손으로 노동의 수고를 했으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위해 마게도니아로부터 온 형제들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에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켰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가 돈을 위해 그런 일들을 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부양기 위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양할 수 있었던 사실을 기쁘게 여겼으며 사실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Irvine Meadow 에서 있을 금요일 선교의 날 밤에 우리는 헌금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돈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할지라도 헌금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금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걷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길 잃고 방황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값없이 줄 수 있고 또 모든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기쁘게 여깁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가 기금을 위하여 수 천 명의 사람을 모아 놓고 이러한 선교 활동을 한다고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방법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를 했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으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기려고 달음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보상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했던 수고에 대해 상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주께서 보여주신 본보기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성감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값없이 주며,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섬기며, 사랑의 손으로 다가가서, 서로 돕고 살며,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처럼 만드소서. 주님께서 종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경주를 게으른 태도로 달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심하여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계속 성경전체를 공부해 가는 가운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1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대부분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의 활용에 관하여는 매우 무지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2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바울은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그들에게 해가리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체 광야생활 동안 이 구름기둥이 있었으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구름기둥이 그들을 실제로 애굽군대에 의해 궁지에 몰리도록 홍해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침례로 비유했습니다. 그 침례는 애굽에서의 삶, 즉 육신에 의해 지배되는 삶, 옛 삶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노예가 되어 죄 가운데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종살이, 즉 육신이 온통 사람을 지배하는, 육신의 힘에 속박된 삶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울은 육신의 힘에 관해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힘이 우리의 온 생애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있습니다. 애굽은 육신에게 노예된 삶의 한 유형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게 종살이하던 옛 삶은 죽고, 끝났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시다.

**3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그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에 반석에서부터 그들에게 물이 흘러나온 그 반석(출애굽기 17:3-7)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 나와,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고, 그래서 그들은 기적으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생명을 주는 물이 흘러나온 그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우리에게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반석을 쳐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물이 우리에게로 흘러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한지 한참 후에(민수기 20:2-13), 그들이 신 광야에 있었을 때, 목이 말랐기 때문에 다시 모세에게 와서 심하게 공박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하느냐, 우리가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오느니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더 나을뻔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모세는 사십년 동안 그들이 투덜대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여기 그들이 또다시 왔다고 아뢰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얼마가 지난 후에는 모세도 주님도 이 백성들에 대하여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았습시다. 주께서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 하셨고, 모세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고 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잡고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다시 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그 일에 대해 주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오,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하사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연고로 모세에게 진노하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석을 두 번 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바울이 이 장에서 몇 군데 우리에게 말하기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나와 광야를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를 위한 거울(본보기)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죄에게 종살이하다가 나와서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 즉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모든 총만한 축복을 즐기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림처럼 묘사하셨습니다. 이런 총만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는 친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번 친 반석은 절대로 다시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오직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반석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반석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생명수는 아낌없이 우리에게로 흘러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을 훼손시켰습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두번째 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삽화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그리려고 하시는 그림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두번째 쳤을 때 하나님이 그리시던 그림을 얼마나 심하게 망쳐놓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두 번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당신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셨으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6절에서 읽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5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들의 광야생활에는 분명히 합법적인 경험도 있었지만, 비합법적인 경험도 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는 아마 한 달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40년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40년을 비합법적인 광야의 경험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것을 비유해 보면, 우리는 죄에게 종살이하다가 나와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도 육적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와 그런 양념들을 생각했고, 고기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하면서 옛 삶을 되돌아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옛 삶에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을 때, 많은 경우 그들은 구습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옛 삶을 꼭 잡고, 완전히 버리기를 싫어하고, 옛 삶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고 옛 관습과 생각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목적은 물론 그들이 옛 구습을 제거하는데 일종의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을 부양하시기 위해 아침에는 이슬로 낮에는 만나로 주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시는 의도는 그들을 총만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초목이 우거진 땅, 농경업에 최고인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 땅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은 종종 찬송가 등에서 상징적으로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보이는 집, 주 날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낮을 그 곳에서 뵈오리(찬 224).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찬 291).” (주: 역자가 한국 찬송가에 있는 것으로 씀). 우리는 요단강에 대해서 노래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렇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때, 그들은 아직도 싸워야 했고,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해야 했으며, 때로는 그들이 패배도 경험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싸우지도 않을 것이고, 패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하나의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안에서 삶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원하시는 이 삶은 기쁨과, 풍성함과, 예비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사람의 죽음이며, 또 우리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와의 이 동일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으로 인해, 육이 지배했던 옛 삶을 끝마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새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후반부와 8장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8장으로 들어가는 삶인데, 그곳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삶입니다. 그 새 법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 성령의 법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고 여기고, 죄의 몸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고 여길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싸웠지만, 한번도 어떤 지역을 실제로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축복들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어떤 지역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 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기 시작하고,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비합법적인 광야의 경험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적들을 쫓아내시리라고 하셨으며, 또 그들이 소유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를 대표하여 한사람씩, 12명의 정탐군을 보낸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군은 그 땅에 대하여 악한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은 하늘을 닿았고, 사람들은 거인어서, 우리들은 그들의 눈에 메뚜기 같았으며,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줄만한 땅이 못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하여 매우 낙담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한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군은 말하기를, 오, 그 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이 큰 포도송이를 에스골 골짜기에서 베어왔는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가 보시오. 우리가 그것을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와야 했노라. 그러나 도성의 성벽은 높지만, 아,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 사람들은 거인들이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열 명의 정탐군의 말을 듣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노라.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인도해 갈 지도자를 뽑자. 더 이상 가는 것은 무의미하니, 우리가 옛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노라 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 나를 너희들이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사십 년 동안 여기 광야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합법적인 광야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의 결핍으로 온 결과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리스천으로서의 경험은 광야의 경험과 같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주님 안에서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기에는 너무 세상적이고, 또 세상에서 행복하기에는 너무나 그리스도적입니다. 당신은 중간 상태, 즉 광야에 있습니다. 당신은 때로는 애굽에 가깝고, 또 때로는 약속한 땅에 가깝지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

곳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그러한 삶은 당신이 애굽에 얼마나 더 가까이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총만하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며,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름다운 그림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6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함이니,** 그들은 애굽의 마늘과 부추와 고기와 육신의 것들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들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7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가 40일 동안 거기에 있었으므로,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와서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케 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그가 죽었을 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40일간 소식이 없으니, 어찌 되었는지 모름이라. 그리하여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모든 귀의 금고리 등을 빼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그것들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백성들이 말하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며 내일 축제를 열리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백성들이 나와 화목제 등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큰 파-티를 하고는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돌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자, 모세가 가로되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도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첫 번째 우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8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 때는 모압 왕 발람이 모압 땅으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발람을 고용한 때였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자 발람 왕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굉장한 부자로 만들어 줄려고 했는데, 만약 네가 저들을 저주했다면, 내가 너를 굉장한 부자로 만들었을 텐데, 너의 하나님이 네가 부자됨을 허락지 않으셨도다. 그러자 발람이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나는 저들에 대하여 어떤 마술도 저주도 할 수가 없도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비록 저들을 저주할 수는 없어도 저들에게 어떻게 저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지는 아노라.

너희 백성들로 하여금 내려가 저들을 환영하고, 저녁에 저들을 집으로 초대하라. 저들이 너희의 집으로 올 때, 매우 은혜스럽게, 또 친절하게 대해 주어라. 그리고는 너희들의 신들을 가지고 나와 저들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우리들이 섬기는 신들이라고 말하라.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들을 숭배하는지 보기를 원하느냐? 묻고, 그들이 너희의 신들을 숭배하도록 인도하라. 그러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지라, 그 분께서 저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라. 우리는 발람의 교활한 충고를 봅니다. 그리고는 발람은 계속하여 말하길, 그 곳에 젊은 여자아이들을 내려보내어, 남자들을 농락하여, 흥분하게 되면, 그들을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의 다산의 여신들을 가지고 나와 이르기를, 이것이 우리가 숭배하는 음란의 신이라 하라.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을 숭배하는지 알기를 원하는지를 묻으면서 저들을 이런 방법으로 유혹하라. 그러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라. 그래서 발람 왕은 발람의 충고를 따랐고, 저들의 간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이르기를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민수기에 있는 이 이야기에 어떤 모순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총 이만 사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고, 전체 종합으로는 이만 사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매우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당신이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모순이 사라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고, 총 합하여 이만 사천 명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숫자를 취급할 때 실제 숫자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알파벳을 숫자를 표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가 다른 숫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oph라는 글자는 숫자로 9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 위에 한 점을 찍으면 900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글자 위에 두 점을 찍으면 9,000이 됩니다. 옛 사본으로 글자 위에 몇 개의 점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글자들 위에 있는 작은 점들의 표시로 9 이거나 900이며, 8 또는 800, 8,000이 됩니다. 원래의 원본이 없으므로,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 숫자를 알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9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중에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뱀들은 불 같이 저들을 물었으며, 그것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울며 간청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이스라엘 진 중앙에 두어서,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가 그 진 중앙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면, 그는 뱀에게 물려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뱀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놋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죄가 장대 위에서 심판되어졌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뱀에게 물린 것으로 인해 죽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께 여쭙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니고데모야 네가 유대인 중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들려진 그 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였습니다.

그것은 장대 위에,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았고, 우리의 허물의 댓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었으되,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이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노예생활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안에 있는 성령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며, 간음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광야의 경험들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적하여 원망하므로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10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 역시 민수기 14장에서 언급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11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진 것은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에 일어났지만, 그것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일은 초대 교회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교회가 주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시리라는 기대 가운데 살기를 의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깨끗케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밤에 재림하실 수 있다는 그 신념은 매우 깨끗케 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오늘밤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과연 나는 준비가 돼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한일서 3:3). 교회 안에 이러한 깨끗케 하는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물질적인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어떤 순간에라도 오신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세상의 물질주의에 사로 잡혀 있는 우리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1절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관해서는 아주 가벼운 관계만 지키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이러한 교훈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 기록되어졌습니다.

**12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한 일들, 즉 우상 숭배와, 육체적이나 영적인 간음, 주님의 일들에 대적하는 원망하는 것들이 당신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 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섭니다.

**13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당신이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일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특급 성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과 계속 싸웁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며, 우리는 이런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종종 탄식하며 자유로와 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며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몸 가운데 사는 동안은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생물학적인 본능적 욕구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드시 피할 길을 택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셨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치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신실치 않은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셨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는데 내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내가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경고를 주셨음을 또한 증거해야 합니다. 그 분께서는 조심할 것을 나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라고 나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항상 신실하셨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달아나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 참으로 피하기 힘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도망을 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런 것들로부터 도망하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인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4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피할 길이라! **15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씀 스스로 판단하라.** 나는 너희가 그것을 알만큼 지혜롭고, 또 그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노라.

이제 바울은 성만찬식에 대해 말하며 왜 이것을 성찬식이라고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6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예수께서 저녁식사 후 잔을 드시고는 말씀하시길,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녁식사 후에 가졌던 유월절 축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잔이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잔”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제 동안 세 잔이 있었는데, 저녁식사 후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잔은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축복하는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무교병(Matzo: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떡)의 세 조각 중 가운데 조각은 부러져있습니다. 우리가 떼는 그 떡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가 신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참여할 때에, 우리 각자는 같은 요소인 예수님께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당신은 주님과 하나되어 교제에 들어왔고 나 또한 주님과 하나되어 교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함께 하나되어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전부입니다.

**17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모두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초월하고, 또 교파를 초월하여,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신자들이 있는 모든 교회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장벽을 넘는 일이며, 갈보리 채플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보아야하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해 짐을 져야합니다. 우리의 경계를 초월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의 지역사회 안에 주님의 축복을 받고 번창하고 있는 다른 사역들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로 공통된 것을 나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소서!

**18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드러진 제물에는 여러 종류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속죄제를 위해 드러진 예물이 있었고 또한 번제물이 있었는데, 이것은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칠 것이라는 헌신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제를 위한 제물입니다. 내가 새끼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새끼 양을 죽이고 기름을 가져다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으면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불에 구울 때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불에 떨어지는 기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제사장이 그 자신을 위해서 양의 한 조각을 취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 굶게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둘러앉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 교제를 갖는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일부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참여하시고, 우리 또한 그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 먹는다는 개념은 참으로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의 일부분을 취하셨고, 우리도 그 양의 일부분을 먹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화목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하여 바울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드러진 제단의 제물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9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신이나 우상들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자유를 행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어떤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고린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무엇이뇨? 우상에게 드러졌던 것이 무엇이뇨? 바울이 앞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우상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20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드러지는 제물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주피터나 다른 어떤 신들의 신전에 그들의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은 그들의 제물을 사단이나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화목 제물로 드릴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러 온다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배타적인 것입니다. **22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재미있는 것은 한 쪽을 택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어떤 것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진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경주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늦추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앞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고린도전서 9: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얼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 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주를 달리고 있고 우리는 그 경주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진보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모든 것이 필요하거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나를 세워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는 것 그것은 가합니다. 죄는 아닙니다. 난폭한 미식 축구를 TV에서 보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세워나간다고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고려하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자유를 갖고 있지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직 믿음에 연약한 형제를 생각하고 배려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당신이 행하는 것을 보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산타 마리아에서 시무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교회의 교인인 한 여인이 아주 잘 알려진 목사님이 인솔하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이 술을 마시며 어떤 여인과 술 주정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실족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성도는 집에 돌아와서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행하는 자유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그 자유를 잘못된 면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만약 그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 연약한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그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나는 실족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을뿐더러 남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를 넘어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자기의 유익만을 찾지 말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바울은 두 세 가지 흥미로운 규율을 줍니다. **25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보통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먼저 우상들에게 제물로서 바쳤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한 부분은 떼어서 사제들이 항상 받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아서 나머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으로 신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닌지를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양심을 위하여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소화 기관을 통하여 배설물로 몸밖으로 나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통과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26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27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어떤 가야만 하는, 의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초대があります.)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 앞에 불고기가 놓여 있거든,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러졌던 고기인지를 묻지 말고 그냥 먹읍시오.

**28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양심의 가책과 또한 너에게 알게 한 자를 위해 먹지 말라.

**29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당신의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먹어도 되지만, 당신 자신의 양심만 가진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이 가함을 안다고 고린도의 몇 몇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 자신을 위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양심”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왜 내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야합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30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다른 말로, 내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구하여 깨끗하여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하기를, 내가 감사하고 먹으면서 왜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남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바울이 답하기를, **31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 하나님, 이 진리를 꼭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붙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6절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견고히 서 있습니다. 당신이 말로나 행동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판단하는데 이것을 표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하는가?

**32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울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33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또 나는 그것을 할 자유가 있어. 나는 그것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말씀에 대한 이해와 주님과 의 관계로 인하여, 나는 이런 것을 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을 실족시키기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행하며, 연약한 형제들을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이해력과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자유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실족케 하는 일은 삼가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행함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나의 확신을 초월하여 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들과 교훈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 안에서 행하여, 그 보배로운 약속들을 상속받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행하고, 연약한 형제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고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을 펴십시오. 11장 1절은 사실 10장에 속하는 것으로, 바울이 10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생각들과 함께 합니다. 거기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본보기로 두었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본보기로 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에, 기꺼이 여기 저기에 조연하며, 어떤 일을 하는데 대한 자기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는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바울은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2년 간 있으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에게 교회의 규례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모든 일에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도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기에, 지금 문제가 있으며 너희들이 나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 나의 충고와 자문을 구하려고 편지를 썼도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요 과제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여자는 노예보다 한 단계 위로 취급당했습니다. 종종 여자는 그녀의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2급 시민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러한 여자들의 취급으로 로마에서 그 당시에 여러 여성 해방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성해방 운동은 여자들이 받는 학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으로 서서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경건한 환경과 분위기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질서를 확립해 놓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질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 문제와 주제는 평등함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신령한 질서입니다. 물론 여자들이 많은 일을 할 자격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자가 일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보다도 더 똑똑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사는 골프를 치는 동안에 사무실에서 여자들이 사업을 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사는 그 여사무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령한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질서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증인들이나 몰몬교 등 많은 사람들은 종종 이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기에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5-11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나타낸 가장 위대한 형상은 마태복음 26:39-44절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여기 이 땅에 그의 육체 가운데 계실 동안 아버지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의 영광이나, 천지 창조 전에 가지셨던 영광과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뜻인 인류의 대속을 위한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항상 슬픈 일은 세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올 때입니다. 이러한 일이 고린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 해방 운동에 연루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러한 규율과 규정과 남성들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여권주의자 성경, 중성 성경 등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왔고, 또 내가 알기론 NIV 성경도 좀 더 중성으로 만들려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여성 해방 운동의 영향으로 이 시대의 압력에 따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 사회의 현대 운동에 따르기 위해 교회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있음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11장을 공부해 내려갈 때, 우리가 좀 더 아래로 공부해 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특히 여인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전체 문제를 매우 균형있게 다룬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균형잡힌 견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은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질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욱되게 하는 것이요. 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욱되게 하는 것이니,** 만일 남자가 그의 머리를 가리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요, 만약 여자가 그녀의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그 당시 결혼한 여인들은 베일을 썼던 특정한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베일을 쓰는 목적은 어느 남자도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정욕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여인은 오직 그녀의 남편만이 그녀를 바라보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그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공공연한 장소에 나갈 때 베일을 써야했습니다. 그 당시 그 문화에서 여인들은 베일을 써야 했고, 단지 베일을 쓰지 않은 여인은 종종 머리를 다 깎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베일을 쓰지 않았거나 머리를 다 깎은 여인을 본다면 보통 창녀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베일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여인은 그녀의 머리나 그녀의 남편을 욱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이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는 창녀임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론 고린도에는 고린도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 사랑과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수 천명의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내로 내려와서, 그들이 번 돈으로 아프로디테 신전을 후원했습니다.

**6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에 처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았습니다. 단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한 가지 금지사항은, (디모데전서 2:12)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서 2:4)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권면하며, 자기의 간증을 나누며, 전도하며, 권고하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위임을 받은 첫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여자들에게 금지된 것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령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남자가 독처 하는 것이 좋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깊이 잠들었고 어떠한 방법이었던지 이것에 대해 많은 제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또는 아담의 옆구리를 취하셨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빗으시고 남자로부터 수혈을 받았다는 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반려자와 함께 교제하도록, 사랑하도록, 또 아름다움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고 그녀는 아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브가 금지된 과실을 먹었고 그것을 또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 또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선언하셨을 때 (창세기 3:16) 말씀하시길,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처음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돌아가 처음에 세워진 질서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이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이것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우리 가운데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신령한 질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신령한 질서를 지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질서를 위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11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균형을 갖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자면, 주님 안에는 이러한 동등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모두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썼듯이, (갈라디아서 3:28) 남자나 여자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신령한 질서에 관해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음은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는 영광스러운 평등함이 있습니다!

종종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더 영적이며 더 민감하고 영적인 것들에 더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 아내는 나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밀고 나가자는 식인데, 내 아내는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여러 번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을 하고 말한 적이 많습니다.

만약 여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선교 활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통하여 선교 사역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일들을 해 냈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마지막 16장에서 그는 여러 여인들에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한 그들의 사역과 일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습니다.

**12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다른 말로, 만일 여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에 없었을 것이고 당신 또한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3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다시금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말하기를, **14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 이 구절로 인해 많은 문제가 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것은 수년 전 그 당시에 있었던 특정한 문화적 현상을 다룰 때였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론 한 때 우리 교회에 남자 성가대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때 나는 강단에서 그들의 뒤에 앉았었습니다. 그들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성가대 가운을 입자는 생각을 했었고, 이 남자들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길고 웨이브가 진 아름다운 머리카락뿐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여기 그들의 뒤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앞모습을 사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보리 채플 성가대, 그들의 앞모습은 수영이 있고 할아버지 안경을 쓴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참으로 많은 긴 머리를 한 남자들이 있었을 때, 나는 미국 전역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카톨릭 교도들로부터 공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나에게 갖다대며 공박했습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본성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라디오 토크 쇼 등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한결 같이 이러한 질문으로 나를 공경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비축해 두었던 답으로 남자들의 긴 머리가 무엇입니까? 조지 워싱턴이나 초대 대통령들의 사진을 보셨습니까? 무엇이 길단 말입니까?

두 번째로, 그것이 죄라고 어디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그것은 죄는 아닙니다. 단지 부끄러운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길고, 굽슬한 머리를 허리까지 내리고 다니는 남자들을 볼 때, 나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머리를 빗으려고 할 때, 나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긴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들을 변호키 위해 나를 택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15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또는 베일)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16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법은 아닙니다. 적어도 베일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입장 때문에 고린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만찬과 성만찬으로 돌립니다. **17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8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임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이 서신 첫 부분에 바울은 이 분열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되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분열은 영적 개발이나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의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특정한 교리의 관점이나 교리상의 문제로 논쟁을 하기를 원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표시입니다. 그들은 영적 성숙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놓고 그들이 지지하는 어떤 교리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분열을 만들면 그것은 육신적인 표시임을 알아야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자라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일에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모임 때 분열이 있다함을 들음이요 또한 내가 대강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9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작은 종파와 분단으로 나뉘고 또한 당파와 교파들로 나누어 졌습니다.

**20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초대 교회에서 그들은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노예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식사는 교회에서 베푸는 이 사랑의 축제날이었습니다. 교회가 모임 때 그들은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와 나누어 먹는 잔치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랑의 만찬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이 노예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만찬이었습니다.

**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이는 시장하고 어떤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을 배고프게 남겨두었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 예민하여야합니다. (에베소서 4:32)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 위에나 앞에 내 세우지 말며,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구치 말고 형제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갖는 일반적인 양상이어야 하지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 위에 남들을 앞세우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기는커녕 다른 이들 보다 더 먼저 달려듭니다.

가족형식으로 접대하는 수련회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관찰한다고 해서 나와 같은 식탁에서 먹기를 원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끔 보는 것은 고기가 나와서 식탁에 돌아갈 때, 식탁에 여덟 사람이 앉으므로 고기가 여덟 조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두세 조각을 집으면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하므로 식탁에 중간 정도 돌아갈 때면 고기는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런 돼지 같은 사람들이 줄 앞에 서서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가져가므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돌아갈 만큼 충분한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 이것을 조심하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와서 마시되 이 사랑의 만찬에서 술에 취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이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서도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나도 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마도 관리자로서 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주차장을 지나갈 때 여기 저기에 종이와 컵, 맥도날드 포장지 등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차장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줍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집과 예배하는 장소가 단정하고 깨끗하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식당에 갔을 때 문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담배를 가지고 급히 뺨뺨 피우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있기에 가족과 같이 앉기 전에 문 밖에 서서 서너 모금 급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는 4분의 3정도 핀 담배꽂이를 땅에 던지고는 그것을 발로 밟았습니다. 내가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담배 연기가 사라지기를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거기 길에 담배꽂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아니 그 사람은 그가 버린 이 담배꽂이를 누가 집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이렇게도 지각없는 행동을 하는가? 누군가가 그가 버린 담배꽂이를 집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누가 이 담배꽂이를 집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는가? 나는 정말로 식당에 들어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당신이 인도에 담배꽂이를 버린 것을 아느냐고 말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누가 그 담배꽂이를 주어서 버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것을 주어서 버려야 합니까?

고려하는 것,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먹는 과자 포장지들을 줍는 사람을 둔 대단한 왕비가 아닙니다. 단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은 야비한 무리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제 주의 만찬, 그 자체에 대하여,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시작의 말을 이러한 말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노라!

나의 공부하는 시간은 나에게 매우 귀하고도 신나는 일입니다! 나의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열어 주시게 하고 그것을 함께 종합하셔서 초안을 주시고 모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흥분됩니다. 그것은 매우 신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내가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나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조용히 그 분을 기다리며 말씀 안에서 주님과 홀로 함께 하는 동안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이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관해서, 바울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또한 전한다고 했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월절은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로 기념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것을 그들로 기념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경험하였던 쓰라린 노예 생활을 그들로 기념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그 엄청난 고통의 노예생활과 애굽에 거대한 유적들을 만드는데 벽돌들을 붙이기 위해 바른 모르타르를 그들로 기념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숙박에서 건지셨으며, 어떻게 어린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므로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로 기념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떼시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직도 기념하는 것이지만,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함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죄의 능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옛 의식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행하여야 하는 성찬식입니다.

**27 그러므로** (이것은 이 만찬이 어떤 술 마시고 떠드는 파티처럼 질서 없이 되어버린 것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술이 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것은 신성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견디신 고통을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찢기셨고, 그의 피는 나의 죄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진지하게 경배드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그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수 세기를 통하여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카톨릭교와 유대교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고 유대인들도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죄책을 로마인들에게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핍박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다툼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견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로마인들도 유대인들도 아닌, 당신과 나의 죄가 주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피흘리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술을 마시고 떠들면서 가치 없는 식으로 임한다면 나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악을 더하게 됩니다.

**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떡과 잔을 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 보아야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신을 살피보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이들을 점검하는 데는 능란한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결점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는 참으로 엄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느그럽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는 한 그리 나쁠 것이 없어! 내가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누구든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것을 할 때 비로서 이해도 하며 그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압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게한 후 (사무엘하 12:1-7)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부자와 그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자는 많은 종과 가축 등이 있었습니다. 그 옆집에 매우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단지 양양 새끼 하나뿐 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그가난한 자에게 자식과 같아서 그 양양과 함께 먹었고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 동물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식과 같았으며 그 가난한 자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매 그 부자는 하인에게 옆집에 가서 강제로 그 양양 새끼를 잡아서 죽여 손님을 대접하라고 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몹시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단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바로 너,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나단은 밧세바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웃 사람인 우리아에게는 오직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강제로 그녀를 취했습니다.

보십시오, 단지 몇 개의 세부사항만 바꿨지만 줄거리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단지 그 이야기의 세부사항을 조금만 바꾸었을 뿐이었지만, 다윗은 자기자신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줄거리는 그대로이고 단지 몇 개의 세부사항만 조금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이 한 것에 단지 조금만 바꾸어서 말한다면 당신은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가혹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리라! 다윗, 바로 네가 그 사람이로다! 내가 했을 때는, 뭐, 그건 그렇게 나쁜 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고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면 형통치 못하나,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9-10).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몹시도 사악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신약에서 얼마나 많이 속이지 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속임수와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나의 생각을 아십시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알고 계시는 진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진실함은 그 사람이 게임에서 이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게임에서 졌을 때 보통 나타납니다. 일이 잘 되어질 때가 아닌 일이 잘 안될 때 진실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진실을 보고 인식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속아서, 아! 나는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쳐서 죽이셨을텐데, 나는 아직도 여기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 이렇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1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신을 살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였더라면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32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함께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함께 정죄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품행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33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줄 앞에 서려고 뛰어가지 말라! 먼저 서기 위해 팔꿈치로 밀어 제치지 말고 서로를 위하여 기다리십시오. 아마도 다음 식사 때에는 사람들을 식탁에 오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은혜스럽게 하십시오.

**34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만약 당신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지금으로서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거기 갈 때,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장입니다.

다음 세 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역사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공부로 들어갑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12장을,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통 그 뜻은 교회 안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너희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할 때마다 그 주제에 대해 많은 무지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12장으로 들어가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 곳까지 인도하셨고,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먼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먼저라는 태도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가지려는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자비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친절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알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는 뒤지지 않았지만,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문제들 중에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과, 14장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교회에서 그것들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쓰려하며, 또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은사들의 오용에 대해 고린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은사와 그것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영어로는 “은사”로 되어 있으며 이탤릭체로 씀)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12장을 시작합니다. 이탤릭체로 된 “은사”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번역자에 의해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좀 더 내려가야 나오는데 사실 원문에는 1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은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신령한 은사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령의 은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은사들이 어떻게 교회에서와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말하기를, **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그전에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성령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너희의 영이 죽었었습니다. 너희는 그전에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희는 새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성령의 삶은 완전한 새로운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영적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때 너희는 육을 따라 육체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고, 오직 아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 신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 함은 신령한 삶에 대한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신령한 삶이란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전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의 정욕에 끌려 우상들을 따라다녔다고 하셨습니다.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 당시 하나도 증명되지 않았던 소문들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들은 사람이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멀리 옮겨져 그 근거지를 전혀 찾을 수가 없지만 추측컨대 어떤 사람이 예배 도중에 일어나 방언을 했고, 거기에 그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방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런 소문은 고린도 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오랜 옛적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소문들은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낙담시키려고 퍼뜨립니다. 방언을 말할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너희가 어떤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말하며, 너희가 방언을 할 때 사실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대해 말씀하시면서, 만일 세상의 아버지들이, 누가 아들이 와서 떡을 달라 하면 떡 대신에 돌을 주며, 또 그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아버지께 있었느냐? 너희가 세상의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연다고 하여 사단이 와서 덮치는 그런 거짓된 경험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입니다. 너희 세상의 아버지들도 너희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죄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에 의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시인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진정으로 이렇게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여기에 있는 은사란 단어는 헬라어에 사용된 것입니다) **성령은 같고**, 바울이 잠시 후 우리에게 목록을 줄 것인데, 그것은 다양한 은사들 중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닙니다(28-30절).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좀 더 많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적고있습니다(로마서 12:3-8). 고린도전서 12장의 앞부분에 언급 된 처음 9 가지 은사 중에 들지 아니한 은사들이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비록 은사는 다양하나 성령은 동일합니다.

**5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이나 행정은 다양하나 주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룰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바울이 이 장의 끝 부분에서 다룰 행정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의 행정적 은사들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정적 은사가 있지만 주는 같으며, 성령도 같습니다.

**6 또 역사는(또는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므로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은사들의 활동 안에 삼위 일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역사 또는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비슷한 성령의 은사를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항상 같은 양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은사가 나의 삶의 한 면에 역사하신 것이, 같은 성령의 은사가 당신에게는 다른 면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생각과 사상들을 심어 넣으시면 나는 그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성령에 의하여 나의 마음에 먼저 심겨져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언의 은사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당신이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사역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형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어떤 한 공식으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이, 내가 피아노 아래에 누워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 당신은 생각기로, 나도 피아노 아래에나 교회의 긴 의자 밑에 누워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형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약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치유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떤 때는 죽기도 합니다. 각각 역사 하심이 다릅니다.

나는 중병에 걸린 소녀아이를 위해 기도 요청을 받은 때를 기억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고열을 앓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몇 분이 나와 함께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아이에게 손을 얹고 나는 그 여자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아이의 이마에서 느꼈던 뜨겁던 열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 마쳤을 때는 이 여자아이의 열은 떨어졌고 즉시 아이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그 아이의 이마에 어떻게 손을 얹었지? 내가 무엇이라고 말했지? 와, 치유가 되었으니, 내가 무엇을 했지? 우리는 그것을 공식화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에 각각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다른 느낌과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니(Finny)박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사랑의 물결이 그에게 흘러 넘쳐 그를 압도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의 물결이 파도 칠 때마다 그에게 흘러 넘쳐 그를 삼키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주님께 더 이상 강당할 수가 없으니 이제 그만 멈추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 사랑의 물결, 너무나도 대단하게 들리므로, 주님! 이 사랑의 물결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공식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를 보면 어느 경우에도 똑같이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각 경우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손을 사람에게 얹었을 때 성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의 경우엔 예수님의 제자가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받았습니. 고벨료의 집에서는 베드로가 강론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이므로 항상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개인의 삶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공식화하거나 규정지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모방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7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든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령을 감동시키시어 당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실 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고, 치료해 주셨으며, 역사 하셨던 것에 대해 그들은 매우 감사해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감사해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답하기를 원하도록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자였고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마약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갈보리 채플에 나왔고 주님을 영접하므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우연하게도 그는 갈보리 채플의 목사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감사해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약으로 병들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있는 이 아들을 어찌할 바를 몰랐고,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에 너무나도 고마워서 나의 사무실에 와서는 그의 수표책을 꺼내더니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는 또 얼마가 필요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필요한 것이 있지만 나는 아무 것도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보답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유익하게 되는 것이지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유익이 교회 전체에 있어야 합니다. 은사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하므로 인하여 교회 전체의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8 어떤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정탐키 위해 어떤 형제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교의 배경에서 온 사람들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 이방인 신자들에게, 당신들은 실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것에 대해 전해 듣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을 찾아내서는,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러한 것들을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권한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같이 가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 짓자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몇몇 형제들과 이러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따라야 하는지 아닌지, 즉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첫 번째 교회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교회의 공회원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자기를

부르셨는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다음 야고보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읽으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를 기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야고보가 정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하여 그리스도의 형제로 환영하고 음행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고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였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야기되었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지혜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받았고 솔로몬의 지혜는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내가 젊은 목사로서 한 20대 초반에 두 번째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을 때, 연중 행사로 야외 예배를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리조나 주 투손에 살고 있었는데, 7월 4일날 해발 6천 피트 가량 되는 레온 산으로 미국 독립 기념일 피크닉을 갔었습니다. 사막의 더운 열기로부터 시원한 산에서 갖는 피크닉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물론 아리조나 주에는 테이블 화장실 등 모든 시설을 잘 갖춘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있었으므로 야외 피크닉 장소로는 적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몇 사람이 산꼭대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는 약 1 마일 가량 비포장 도로를 가야 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독립 기념일 피크닉으로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테이블도 없고, 공공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그냥 기도 모임만 갖자고 했습니다. 왜 피크닉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 교인이 이 산에 올라 기도 모임을 갖는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설득시켰습니다. 한편 반대하는 쪽에서는 안됩니다. 흠만 있는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며, 손을 씻거나 화장실 시설도 안된 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7월 4일에 기도하러 가자는데 어떻게 안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령한 자들의 기도 모임을 하자는 우리와 그저 피크닉을 원하는 실질주의의 우리가 생겼고, 기도 모임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립 공원으로 간다면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 다른 우리는 산으로 가게 되면 자기네들은 안 가겠다고 하며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시점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해결을 보든 어느 정도는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제직들에게 결정케 했습니다. 결국은 제직들이 지혜롭게 주립 공원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결정에 불만을 갖은 사람들에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직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결정한 것이니 그저 따르자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자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 지혜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바로는 누가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겠는가 하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의 올바른 적용을 말합니다. 지식은 많이 있지만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없는 지식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상당한 지식은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식의 말씀,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추론에 의하여 아는 것이 아닌, 성령의 계시로 알려진 것을 말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주님께 헌신하는 믿는 자들 가운데에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팔아, 그 돈을 사도의 발아래 놓으면, 교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도 그들의 재산을 팔아 전부가 아닌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 다를 바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발아래 내려놓자 베드로가 질문하기로, 이것이 전 소유를 판 값이냐? 할 때 아나니아는 그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성령이 아니고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진실을 아나니아에게 말할 때 그것은 지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사실은 조금은 숨겨두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위선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대저 여호와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9 다른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한 마흔 살 정도의 앉은뱅이 된 자를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와 솔로몬의 현관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 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말하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일으키니 그가 곧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다리에 힘을 얻었고 걸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모든 백성들이 그 걷는 것과 뛰는 것을 보고는 저 사람은 미문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아니냐 하니, 다른이들이 그 사람 같다며 어떻게 저 사람이 걸을 수가 있을까? 하니 우리도 모르는 일이라 하며 서로 수군 뒀습니다.

그 때 나온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고 끌어안으니, 백성들이 이 기적이 베드로와 관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아주 대단한 성자인양 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느니라. 그리고는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것은 실로 나의 믿음이 아닌 주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곧 믿음의 은사가 역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순간적으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당신이 그 믿음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로서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환경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년 전 선골라워 길과 그린빌 길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시무하고 있을 때, 아침 예배 후 어떤 아이들이 바퀴 달린 의자에 앉으신 그들의 할아버지를 밀고 문 앞에 서있는 나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말하기를 척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물론이지 라고 말하고는, 그 할아버지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을 막 읽은 후라서, 나는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행했던 일을 나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서 두 발로 서게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걸으라 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걸으신다! 하며 펄펄뛰며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배당의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걸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이러한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휠체어에 앉은 사람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왔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의 역사였습니다.

그 주 수요일 밤에 친척들과 추수 감사절을 같이 보내기 위해 특슨으로 갔습니다. 몇 년 전에 그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으므로 수요일 저녁 추수 감사절 예배에 설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나 뒤 한 남자가 휠체어에 태운 아내를 데리고 나에게 다가와서는, 아내가 뇌졸중이 왔는데 낫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께 그녀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계속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나가자 내 아들 척 주니어가 말하기를, 아빠! 지난 일요일에 아빠가 일으켰던 그 할아버지처럼 왜 그녀를 일으키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일으키려는 어떤 충동이나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려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가해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는 이 믿음이 허락되고 어떨 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은사로 한 때는 명백히 나타나지는 것이요 어떨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저장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어서 언제든지 원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내지는 은사이기는 하지만,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또한 엄청난 지식의 축적이 내게 있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물어올 때 당신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나에게 오면 해결책을 줄게, 결코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있지만 어떨 때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으로 어느 한 순간에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데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의 은사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나는 가르치면서 종종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 또는 예언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있을 때 은사들은 역사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끔씩 중지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참으로 흥분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에 자주 실례를 사용합니다. 내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진리에 대한 실례가 내 마음에 떠오릅니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다. 지혜의 말씀이 온다는 어떤 신호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 떠오르면, 나는 그것을 그냥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 한 실례가 그들의 친구들의 상황과 너무나 여실하여 그들은 사실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그들은 서로에게 화를 내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대해서 목사님께 말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람의 마음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설교를 했는데, 물론 그 설교는 라디오를 통해 전 지역으로 생 방송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아닌 문서 선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거짓되고 가장된 사역자들은 그들이 가진 우편 명단의 사람들에게 컴퓨터로 찍은 편지를 보내어, 그것을 의지하여 생활합니다. 그들은 우편을 통하여 매 월 보조를 원하는 그들의 탄원서를 항상 발신인 봉투와 함께 보냅니다. 매 월 내보내는 이 편지 내용에는 그들의 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적혀 있고 그 사역이 계속 되어지도록 보조를 원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가 없게 되면 파산 선거를 내야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또한 알립니다. 그들은 그 우편 수취자 명단의 보조에 의존하여 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 비서가 목사님과 통화하기를 고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매우 화가 나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은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사역이며, 내가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문서 선교는 거짓 선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리도 작은 섬에 살고 있으며, 두껍이 열리는 하얀 캐딜락 자동차를 갖고 있으며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잠깐만! 잠깐만! 나는 그냥 내가 만들어 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며, 당신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의 말씀이 역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은사로 인해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은사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은사.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나온 믿음이 이 사람을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치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 9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 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 오셨다

하였더라. 바울은 여기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음을 감지했습니다. 바울은 영 분별력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람이 치유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라고 했고, 그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은사였습니다.

**어떤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지셔서 치유하셨을 때마다, 당신은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번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수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여태껏 사역을 하는 동안 나의 몸이 좋지 않아 강단에 서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린빌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있었을 때, 주일날 세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지러우면서 기운이 너무 없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수도 없었고 빙빙 돌고 하여 아들, 척 쥬니어를 깨워서, 오늘 아침에 나 대신에 네가 설교를 하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척 쥬니어는 나 대신 1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아파서 오늘 교회에 올 수가 없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옷을 입고 그 다음 2, 3부 예배를 인도하러 나갔습니다. 나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낮게 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토요일 밤에 우리는 교회 건물 뒤에 있는 기도방에 장로들이 모여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 받으십시오. 장로들은 뒤에 있는 방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지셔서 치유해 주실 때, 그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 등 모든 다른 질병들을 놀랍게 치유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0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에 대한 실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녀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바울에 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역사요 바울의 손에 의한 특별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언의 은사,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아가보 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빌립의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 아가보 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미래를 예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때, 그것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14장에서 예언에 은사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할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사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여 말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임종의 자리에서 말하기를,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였으며, 주의 말씀이 나의 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임을 인정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 분별력의 은사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8:20절부터 시작하여 이것에 대한 실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상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에게 안수하매, 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터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기적들을 보았으므로 역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기를 원하니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 은사를 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사용하여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마음 속에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 마을에서 유명인으로서의 그의 위치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빌립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전까지는 시몬이 보여주었던 마술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사람들은 시몬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영광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네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내가 보건대(관찰해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들 분별함이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오순절날,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glossa: 모르는 언어)을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오순절 축제를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있었는데, 이 소리가 나매 큰 우리가 모여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약 17개의 언어 그룹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던 각기 다른 방언들을 알아들었습니다. 언어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각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우리 방언(헬라어로 dialektos)으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glossa, 즉 모르는 방언(언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dialect, 즉 그들의 지방 언어였습니다. 저들이 우리 지방에서 쓰는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특정한 목록의 마지막으로,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평소 알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통역함을 말합니다. 번역함이 아니라 통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흥미롭게도 신약에는 방언의 통역에 관한 실례가 하나도 없지만, 바울이 14장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말할 것입니다.

구약에 방언의 통역에 관해 언급된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벨사살왕이 그의 귀인 일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벨사살왕이 술에 취하였을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해 놓은 금, 은, 기명들을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갖다 놓은 것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소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으로 술을 마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명들로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할 때 홀연히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아무도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글이었습니다. 왕은 곧바로 박사들을 불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고 물었지만 저들 또한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태후가 말하기를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온 자로, 그는 꿈과 해석을 말할 수 있으니, 그를 부른다면, 아마도 그가 그 글자들의 뜻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다니엘은 거의 90이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왕은 말하기를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메네(MENE)라는 글자의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TEKEL)이란 글자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베레스(UPHARSIN 또는 Peres)란 글자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분벽에 쓰신 단어들을 해석했습니다.

몇 년 전 갈보리 채플의 전환기 시절에 한 불락 떨어진 곳에 작은 예배당을 짓기 전 우리는 일요일 오후에 루터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우리의 모임을 위해 뉴포트에 있는 오락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순절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친 후, 그 당시 한 50명 정도가 모였으므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성경 공부 후에는 의문이 나는 말씀의 질문에 대답도 해 주는 토론하는 시간도 갖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날 성경 공부 후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 그룹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언을 할 때는 불어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오늘은 오순절 주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릴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불어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라틴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녀가 불어를 말할 때 나는 약간은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어는 낭만적인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녀가 주께서 그녀에게 주신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 그것은 정말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 그녀는 나이트클럽의 가수였었는데, 주께서 그녀의 마음에 주신 모든 새로운 노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내 지식으로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통역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 왜냐하면 내 지식과 성령을 혼동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부인인 케이(Kay)가 통역을 하였는데,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주님, 주께서 나에게 이 아름다운 새 노래를 주셨으니, 사랑의 노래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신 노래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친구의 권고로 팜 스프링에서 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성경 공부 후에 상담을 하기 위해 인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녀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의 문제를 의논하기 전에, 여기서 있는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왜 한 여인은 불어로 그룹에게 말을 하고 다른 여인은 그것을 통역을 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두 여인 다 불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그 여자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며 나는 그 두 여인들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그 두 여인 중 한 여인이 나의 부인이며 그들은 전혀 불어를 알지 못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해 주고, 방언의 은사와 통역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역사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불어를 말한 그녀는 평범한 불어가 아닌 귀족들이 쓰는 엑센트로 불어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나는 충분히 그리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의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으며, 그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성령의 은사의 참된 역사를 목격하므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5년 간 살았었고 부유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유대인의 배경에서 왔고 팜 스프링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불란서에서 5년 간 살았으므로 불어를 잘 알고, 부유했기에 그곳의 귀족들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은사의 역사가 증명됨을 봄으로 그녀의 마음은 그것이 진실 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당신에게 2, 3 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주시기도 하고 더 주시기도 합니다. 그 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나 따로따로 나눠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성령이요, 같은 하나님이시며, 같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몸의 하나 됨으로 연결합니다.

**12 몸은 하나(그리스도의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과 손가락들, 손목, 팔, 머리, 발들, 다리 등 우리 몸에는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기관들이 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하지만 온전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두 다 필요합니다. 눈들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며 귀, 입 등 모두 다른 특정한 목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필요하며, 한 몸 안에서 모두 함께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두 이러한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들이 있지만, 연합하여 모두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연합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사회 안에 있는 성공회, 루터교, 침례교, 장로교 등 모든 다른 교파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파의 이름 아래 있던 상관 없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면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기능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도록 갈보리 채플에서만 행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이런 다른 사역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끌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위치한 자리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전체 몸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며, 배타주의로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최고이고, 우리가 전체라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전체 사역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칭찬을 받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우리로 보도록 도우소서!

**14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몸에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그렇다면 매우 괴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성령께서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을 여러 가지로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몸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도와고 의존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관들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 홀로 앉아 말하기를, 나는 여기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교회가 필요 없고, 또한 성도의 교제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말은 나는 온 몸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온 몸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몸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온 몸이 아닙니다. 아무도 온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며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만일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의로 여기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의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던 몸은 어디뇨?** 만일 한 부분만 있다면 그것은 몸이 아닙니다.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2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당신의 몸의 모든 지체는 몸의 완전한 기능을 위해 다 필요합니다.

내가 몸의 한 부분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 뛰어나지도 나타나지도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몸의 한 부분이며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온 몸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데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몸의 부분일지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화기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며, 뇌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당신의 심장, 폐 등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몸의 필수적인 기관이며, 모든 몸의 부분이 모든 사람의 볼 수 있는 나타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몸 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만족치 않고 싸운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 자신의 몸에 자기의 기능에 대해 이러한 반항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당신이 엄지발가락이 말하기를 덤고 냄새나며 어둡고 습한 이런 곳에 있는 것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해 줄 수 있는 이마의 한 중앙에 나를 놓아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지체 안에서 일어난다면 괴상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뜻대로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분의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 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비록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온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중요한 지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여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중보 기도자라는 배지도 달고 있지 않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없이는 기능을 할 수가 없으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또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 가운데 이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의 임무를 잘 이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몸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아름다움을 약속하셨습니다.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비록 당신이 하는 사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당신의 사역을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사역을 몸의 한 지체로서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당신의 신실함에 상주실 것입니다.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것은 앞이마의 중앙에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한 몸임으로 서로 돌보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라서, 만약 당신이 고통 당하면 나 역시 고통스럽고, 만약 당신이 축복을 받는다면 나 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영광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한 몸이므로 나도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보리 채플 위에 주신 축복과 영광은 나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온 몸 위에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축복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갈보리 채플 성도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에 우리는 모두 함께 즐거워합니다.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다시 엄지발가락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발가락을 밟으면 어디가 아픈니까? 예, 전체가 아픕니다. 만약 그 밟힌 발가락이 부러진다면 얼마동안은 온 몸이 절룩거릴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습시다.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각 자마다 우리의 자리가 있고 각기 기능이 있습니다.

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 순서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첫째가 사도요, 그 다음이 선지자, 그 다음이 교사, 그리고 능력이라. 만일 우리가 목록을 만들었다면 아마도 능력을 첫 번째로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29 다 사도겠느냐? 아니라.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라.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라. 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아니라.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아니라.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활동을 하지만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일들을 하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거기에는 단일성이 있는 동시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양성도 있습니다.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엇이 큰 은사입니까? 나도 잘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리라 봅니다. 나는 나의 차고에 여러 개의 톱이 있습니다. 세밀한 곡선을 자르는데 쓰는 톱, 나무를 자르는데 쓰는 톱, 쇠를 자르는 톱 등 최신형의 톱들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고요? 먼저 무엇을 자르기를 원하십니까? 파이프를 자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쇠 자르는 톱이 있습니다. 합판에 있는 원들을 자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곡선을 자르는데 쓰는 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은사가 가장 크고 좋은가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에 달려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몸 안에 각 지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우리에게 몸 안에 각 자의 자리를 주셨고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곳에서 나의 의무를 다 이행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은사인지를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안에서 목사/선생으로서의 나의 사역에 큰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으므로 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체 안에 나를 부르신 곳에서 꼭 나에게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갈망 또는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지체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한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곳에서 당신을 더욱 크게 준비시켜 쓰실 수 있도록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능력이나 이러한 모든 다른 것보다도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제일 좋은 길. 더 높은 사랑의 길을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를 계속해 가면서 다음 주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인 13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당신의 몸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세워주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로 서로를 위해 돌보고 관심을 가지며,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아파하게 하옵소서. 또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그들과 모두 함께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모든 일에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정한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렀습니다.

12장에서부터 시작하여 14장까지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육에 내어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적인 도시 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들과, 성령님에 관해서 말하고, 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많은 성령의 역사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하면서, 수사적 질문을 하기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수사적인 질문의 답은 당연히 아니요 입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방금 많은 지체들을 가진 몸에 대해 말했습니다. 몸의 각 부분은 몸 안의 각기 제 자리에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은 필요한 것이나 모두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행정의 다양성 그리고 사역의 다양성이 있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이시고, 한 주님이시며, 한 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는 말씀으로 12장을 끝맺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그 큰 은사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면서, 그것은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은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사람들이 갖기를 소원하고 또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보다도 더 우수한 제일 좋은 길이 있습니다.

나는 수년간 능력 행하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나는 사도들의 능력에 깊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또 항상 그것을 읽으면서, 사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길 갈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과 병 고치는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나는 이러한 은사들이 나의 삶 속에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막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행해졌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 대해 죽는다는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할 때 그것은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게 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의 대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러한 은사들을 행함으로 받게 되었을 주목과 유명세를 나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와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이제 봅니다.

수년이 지나는 동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나는 참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만약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지 않았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 월요일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도록 초대했을 때 거의 백 명에 가까운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와 기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매우 특별한 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아름답게 역사 하신 날이었습니다.

다. 우리 모두는 여기 서서 주님께 경배 드리며, 그날 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나오게 역사하신 것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서 함께 경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심을 느끼면서, 나는 지금과 같이 강단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교회 안에서 그분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벽찬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전의 일을 꺼내면서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나의 사역의 초기 때에 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들과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이해하며, 내가 그것들을 감당치 못했을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기실 수 있는 자리까지 성숙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심과 성령의 은사들의 나타나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 이러한 모든 나타나심들이 완벽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주님! 생각기로 이제 주님께서 저를 신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이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매우 선명하게 말씀하시길,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의 길을 행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 특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이러한 색다른 성령의 나타나심보다도 더 큰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면서 13장을 엽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 □□ □□□ □□□ □□□ □□ □□□□, 바울은 여태까지 초자연적인 방언의 은사들에 대하여 말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방언의 은사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이며, 개인의 기도 생활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은사입니다. 그것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깊게 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로 이끌려 갔던 경험을 (고린도후서 12:2-4) 이야기했을 때 나는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들으며, 이러한 체험은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나 언어가 없는 이곳 지상에서의 어떤 것도 능가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충만함입니다!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나 다른 어떤 언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로 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도록 허락 받았던 그의 천국 경험을 참고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제한하려고 애쓰는 것은 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심원한 예배는 언어를 초월합니다. 사비나롤(Savinaroll)은 말하기를, 기도가 그 절정에 이르면 말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려고 할 때, 언어는 그러한 표현을 더 잘하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소시키거나, 언어로 표현하기가 적절하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교제나 감사와 찬양의 표현을 위해 이 방언의 은사는 굉장한 이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4장에서 공부할 이 모르는 언어, 즉 glossa 로 주님께 말할 수 있고, 비록 내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신령한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모르는 언어지만 이러한 방언으로 내가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1-13절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그들은 모두 glossa 로 말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보고는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자가 태어난 나라의 고유 언어(헬라 단어로 dialektos)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말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언어였으며, 그들이 공부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은사였습니다. 천사의 말이란 아마도 천국 언어일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언어를 말할까요? 스웨덴 사람인 나의 장인은 천국에서는 스웨덴말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은 천국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에 의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언어로나 천사의 말로 하나님께 말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을 지라도, □□□ □□□ □□□□ □□□ □□□ □□□□ □□, 다른 말로 하자면, 아무 의미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울리는 썩과리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이 이색적인 방언의 은사도 무의미한 소음일 뿐입니다.

킹 제임스 영문번역본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비(charity) 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클리프(Wycliffe)가 라틴 불가타(Vulgate) 성경(405년 전에 완성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라틴어 단어인 charitos를 번역한 것에서 온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라틴 불가타로 번역 했을 때의 헬라 단어는 아가페(agape)였습니다. 그들이 라틴어 charitos로 번역한 이유는 라틴어로 사랑 (amour)이라는 단어는 육적인 사랑을 의미했기 때문에 amour라는 단어를 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기꺼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은 라틴 불가타 성경에 charitos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Wycliffe)가 라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라틴어 charitos를 직역하여 charity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charity란 단어는 그것의 사용과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자비(charity)를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때 자선 냄비에 1불을 넣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나 자선단체 등에 옷들을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의 바뀜으로 인해 자비(charity)라는 단어가 동정한다(sympathy)라는 생각을 갖게되어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더 이상 나타내지 못합니다.

헬라어 아가페(agape)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가, 헬라어에는 사랑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은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3단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헬라인들은 영적인 단계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육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은 이해했습니다. 언어에 있어서의 약점이 특히 영어에 있습니다. 불란서인들이 불어의 우월성에 대해 말하면서 이러한 약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 영국인들은 너희의 아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한 단어로만 제한되어 있지? 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백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 자신을 낭만파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땅콩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나는 땅콩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무척 힘이 듭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땅콩에 대해 갖는 감정과 내 아내에 대해 갖는 감정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넓은 범위로 묘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육적인 단계의 사랑은 에로스(eros)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 신화에 에로스는 그들의 사랑의 신 아포로디테의 배우자였던, 육적인 사랑과 열정의 그리스 여신이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사랑을 말할 때 그들은 헬라어로 에로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수

준의 사랑으로 그것은 항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섹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육체적인 사랑, 이것은 성적 관계를 갖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어로 필레오(phile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정함,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적인 면이 관련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필레오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필레오를 말합니다. 늙은 여인들은 젊은 여인들에게 그들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그 때 필레오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존경, 다정함 그리고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역으로 안으로 들어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헬라인들이나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뿌려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랑을 초월하며, 필레오 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보통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순전히 이기적입니다. 필레오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므로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통하며 서로를 잘 이해해 주니,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는 같은 종류의 음악도 좋아하고 같은 종류의 책도 읽고 등등, 우리는 이러한 유사점들이 있어 하며 서로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향해 이러한 다정함과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필레오 영역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서로 주고 받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13장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사랑인 아가페란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푸는 사랑이며 신령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약에서 고안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사랑 또는 감정적인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아가페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그 단어의 뜻을 만드는 것은 필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이곳 고린도전서 13장은 근본적으로 헬라어 아가페란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가페를 정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들을 열거합니다 -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은 아가페의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 이 아가페에 대한 정의들과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같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보다도 더 좋은 길을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 □□ □□□□ □□ □□ □□ □□□ □□ □□□ □□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내가 알고) □ □□ □□□□ □□ □□□ (이것은 앞 장에서 언급한 성령의 은사들, 즉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들을 내가 가지고) □□□□□ □□□ □□□ □□ □□ □□ □□□. 이 사랑은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며, 성경 말씀의 영적인 적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3 □□ □□ □□ □□ □□□ □□□□, 여기에 자비 charatos 란 단어가 맞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매우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젊은 관원에게 “만일 내가 온전하기를 원하면 가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만일 모든 일들을 하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없음을 말합니다.

□ □ □□ □□□□ □□ □□□□,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뚝에 매달려 불살

림을 당하며 기꺼이 순교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 □□□ □□ □□ □□□ □□□□. 만약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이색적인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아가페의 특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로, 아가페 4 □□□ □□ □□ □□□□, 다른 곳에서도 말했던 것과 같이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삼 세 번을 말합니다. 세 번까지 참은 후에는 가만 놔 두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은혜가운데 많이 자랐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여쭙기를, 형제가 같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는 우리가 시도하는 세 번을 훨씬 넘는,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베드로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고 하셨습니다 (마태 복음 18:21). 아니, 사 백 구십 번이라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란 숫자를 계산하는 수학적이지 아닌 영적인 문제임을 이해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거듭 되어지는 오래 참음 후에 오는 은유입니다! 그래, 이 정도 충분히 참았으니 이제 해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는 기간 끝에는 은유함 입니다. 그것은 보복이나 복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유함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 □□ □□ □□□□, □□□ □□□□ □□□□,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웨익스피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너무 자랑치 말라.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나는 그들의 엄청난 사랑과 헌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덴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이 갑니다. 그들은 너무나 화사하게 아첨합니다. 아가페는 그 자신을 뽐내지 않고, 자신에 대해 허풍 떨지 않습니다.

□□□□ □□□□,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세워나가는 것이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5 □□□ □□ □□□□, 이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 □□ □□□□, 너는 “내 방법으로”하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다면 나는 집으로 갈 것이며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놀지 않을 거야라고 하며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급히)□□□ □□□□, (급히. 원래 원본에는 없었던 이 말은 킹 제임스 번역본을 번역한 사람에게 의해 더해진 것으로 좀 더 이해하게 하기 위해 ‘급히’ 라는 단어를 더 한 것 같습니다.)

□□ □□ □□□ □□□□, 그것은 어떤 숨겨진 동기를 찾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숨은 의도 같은 것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숨은 의도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내가 설교를 마친 후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만약 “hello”라고 말을 했다면 정말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hello”를 뜻했지만, 그 여인은 정말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어떤 미묘한 숨겨진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미묘한 것을 말할 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내가 말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6 □□□ □□□□ □□□□,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많은 나쁜 일들을 행해 왔는데, 그 사람의 새 차가 사고로 다 부서졌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낌을 가질 것입니까?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 □□ □□□□,

7 □□ □□ □□□, □□ □□ □□□, □□ □□ □□□, □□ □□ □□□□□. 이것



들은 아가페의 특성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의 절정으로, 8 □□□ □□□□□□ □□□□ □□□□,

자,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할 자리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28절) 성찬식에 대해 말할 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중대한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의 뜻의 정의를 읽은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십시오. 척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척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척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척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척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척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척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척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척은 모든 것을 참으며, 척은 모든 것을 믿으며, 척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이 구절을 읽어내려 가면 이런 것들에 내 이름이 맞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단어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수님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십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주께서 나로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목록들에서 얼마만큼 나아왔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평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내가 갖고 있을 이 모든 영적인 은사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지만, 이러한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함으로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지만, 어느날 이러한 은사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 □□□, 다시 말하자면 이 신령한 예언의 은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 □□□ □□□(지식의 말씀의 은사) □□□□.

9 □□□ □□□□□ □□ □□□□□ □□□□

10 □□□ □□ □ □□□ (또는 완전하여 질 때. 부분적과 온전함을 비교할 때 온전한 때가 올 것입니다.) □□□□□ □□ □□ □□□□.

당연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성령의 약속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2장 28-32절)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 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내릴 것이며 주님이 오실 그 장엄한 날이 오기 전에 달이 피로 변할 것이고 해가 어둠으로 바뀔 것이라.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어질 요엘의 예언입니다. 요엘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고 했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은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이 필요할 것이지만 우리의 이 지상

에서의 순례의 길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 때엔 이러한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도 폐하고 신령한 은사들인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것이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할 것입니다.

11 □□ □□□ □□□ □□□ □□ □□□□□ □□ □□□ □□ □□□□□ □□ □□ □□ □□□□□ □□□, 우리는 아직도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많은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언젠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때 온전하게 알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달았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 □□□ □□□□ □□□□□ □□ □□□□. 12 □□□ □□□ □□□ □□ □□ □□□□, 현재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치 않고 희미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지 못합니다.

□ □□□ □□□ □□□ □□□ □ □□□.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희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8절에서,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비록 그 분을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기쁨에 찬 소망으로 즐거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 □□□□□ □□,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온전한 것으로 모든 비밀은 없어질 것입니다.

□ □□□ □□□ □□ □□ □ □□ □□ □□□ □□□. 나는 모든 것을 알 것입니다. 말씀의 온전한 전경으로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대하기를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의 순례의 길을 잘 통과하도록 주신 돕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순례의 마지막 길에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3 □□□ □□, □□, □□ □ □ □□□ □□ □□ □□□ □ □□ □□□ □□□□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망, 천국의 소망, 주님과 함께할 영생의 소망 이것도 있어야 합니다.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이것들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13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4장 첫 부분에 있는 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제 사랑을 따르고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를 도와주세요소서!

## 고린도전서 14 장

고린도전서 14 장을 펴십시오. 이 장은 바울이 세 장에 걸친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 결론을 짓는 장입니다. 14 장 1 절에 바울은 12 장과 13 장을 종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3 장은 사랑에 관한 것만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1 사랑을 따라 구하라 (또는 추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런데 12 장에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끝 맺었습니다. 여기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 두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확실히 더 나은 은사입니다.

**2 방언을 말하는 자는 (the glossa)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은사로, 우리의 지식의 그 좁은 전달 통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과, 하나님의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여 영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언어가 부적당함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언어의 결점 또는 우리의 지식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로마서 8:26),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아버지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적인 경건한 삶을 위한 귀한 은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신령한 또는 아름다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2 장)에서 성령이 교회에 임했을 때, 그들은 모두 그들이 모르는 언어, 즉 glossa 로 말했는데, 그것은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오순절 축제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듣고 놀라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각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3 그러나(반면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고 다른 때는 저들에게 열심을 내라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하여 저들로 확신을 갖게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위로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격려하며,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성령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당신의 언어를 유발시키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격려가 되는 경험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저들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에 의해 유발된 언어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저들에게 이러한 교제 안에서 가져다 준 축복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이와 같이 공공 집회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개인의 덕보다는 전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여기 서서 모르는 방언을 말한다면 비록 나는 덕을 세울지 모르지만 교회에는 덕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목적은 한 몸인 전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공 집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은사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있어서 방언의 은사만큼 당신의 기도의 삶을 도와 줄 더 좋은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개인 자신의 경건한 생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최대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므로 받는 축복들을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방언에 동반되는 은사입니다. 그 목적은 만약 방언의 은사가 공공 집회에서 행하여 졌을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 방언으로 말하면, 그와 동반되는 통역의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말한 것에 대한 통역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다면, 우리는 저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거기에 통역이 없다면, 그 방언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에게는 소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통역을 통한 통역자가 있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를 사용하여 방언으로 만 말한다면 너희에게 전혀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예언을하거나, 또 너희에게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내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행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축복이 되며,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 예배를 위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항상 몸 전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7 혹은 저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피아노는 어떤 생명도 없지만 건반을 치면 소리를 냅니다. 나팔 또한 생명이 없지만 바르게 불면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많은 악기들을 갖고 있지만, 이것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악기들은 그 자체로는 소리를 낼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만약 어떤 노련한 솜씨를 가진 사람이 그 악기를 연주한다면 우리는 그 음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피아노를 칠 때 우리는 그 음을 알 수가 있지만, 한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건반들을 마구 두드리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소음만을 주지만 이 소음 속에 구별되는 어떤 알 수 있는 음의 형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것들은 우리에게 단지 소음일 뿐 아무 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가 통역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피리나 거문고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즉, 솜씨있게 연주하지 아니하면), **저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현대 통신 수단으로 쓰고 있는 확성기나 스피커 등이 있기 전에는 군대에서 나팔로 군인들을 지시했습니다. 나팔의 소리가 먼 곳까지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기 다른 나팔 소리를 냈습니다. “다 다 닷 타 다” 소리가 들리면 이것은 돌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적군을 대항하여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팔수가 그냥 불기만 하고 어떤 특정한 음을 내지 않는다면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점심 시간을 알리는 것인지, 취침 시간을 알리는 것인지, 기상 시간을 알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상 나팔이 있었고 군대들을 지시하는 여러 가지 나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팔이 전쟁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인들에게 지시를 실제로 알리는 어떤 특정한 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9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만일 당신이 알려지지 않은 방언으로 말을 하고,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허공에다 말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시간만 허비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는 덕이 되겠지만, 다른 아무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10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수 많은 다른 언어들)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언어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리들은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계약 내지는 협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로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는 이 특정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동의 하는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과 개념들을 영어라는 언어로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소리는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동의 안에서 우리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친구와 동의 아래 소리를 만들어, 어떤 특정한 음은 어떤 특정한 것을 의미한다고 서로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개인용 언어로 짧게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언어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우아”란 오늘 밤 교회 집회 후에 커피 한 잔 합시다 라는 뜻이고, “누아”란 좋은 생각이야. 누가 살 건데? 라는 뜻이라고 합시다. 교회 집회 후에 내가 나가서 “우아” 라고 말하고, 당신은 “누아” 라고 말하면서 같이 나간다면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가 하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러한 동의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서로 협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항상 신기한 것은, 외국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거리에 서 있을 때입니다. 중국에서나 일본의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노라면 나는 조금은 당황하게 됩니다. 저런 소리로 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저들은 서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서로 동의하는 모든 소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말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외국어로 들릴 뿐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11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외국어입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과 또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언어를 모르는 당신이 서로 교통하려고 애쓰는 것은 참으로 좌절시키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소리가 의미하는 것에관해 동의하에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좋은 실례입니다. 그들은 서로 교통하지만 당신은 알 수가 없으며, 당신이 말하는 것 또한 저들도 알 수가 없게 되면, 물건을 들고 가리키며 영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교통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서로에게 외국인과 같으며 야만인과 같습니다.

**12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바울은 고린도인들에 관해 말하기를, 그들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다시 말하자면, 그런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세워나가는데 사용하는 것이며, 방언은 교회 전체를 세워나가는데는 가장 미약합니다.

**13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말은, 만약 당신이 교회에서 방언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도 당신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은 재미있는 문제를 가져다줍니다. 만일 당신이 방언의 은사를 자유로이 행하는 오순절 교회를 방문케 되었다고 합시다. 흔히 오순절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역이 뒤따르지 않고, 예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나는 오순절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형제들이고,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사들에 대해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지만, 통역을 주는 대신에 그들은 방언 후에 예언을합니다. 방언의 통역인지 예언인지는 매우 쉽게 식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하면서 그들로 찬양토록 권고하고, 신뢰토록 권면하며, 하나님을 찾도록 권고하면, 그것은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신령한 비밀을 말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통역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무엇이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큰 일을 선언하는 것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드리는데 통역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서 너 구절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십시오.

**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6 장 (6:11-20)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한 후에 전투에 들어갈 때,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격려합니다.

유다서 (20-21 절)에, 유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경배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실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지성)은 열매를 맺이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지성에 모욕이 됩니다. 그것은 나의 지성을 비하시킵니다. 이지적으로 방언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나의 지성에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인 것 같이 나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 13 장에서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지성에는 모욕적이지만, 영으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5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나는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것은 내가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영으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이것은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것은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6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즉,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므로 내가 여기 서서 방언만을 말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 멘’ 하며 화답하겠습니까? 아마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시고, 축복하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아주 아름다운 방법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 멘’ 으로 화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쁜 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또는 다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대중 가운데 방언의 사용을 격려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크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에서는 종종 방언의 은사의 남용으로 자주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자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의 사용이 더 큰 은사의 사용을 방해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방해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순절 교파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요, 그 교파 운동에서 유일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도널드 지(Donald Gee) 목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의 책에서, 여러 가지의 은사와 그것들의 사용을 정의하면서, 방언의 은사의 사용에 대해 말하는 장의 제목을 ‘방언과 방해’ 라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오순절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방언의 은사 그 자체를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의 그릇된 사용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18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며, 그 은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19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비록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일정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지만,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나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서서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방언으로 한 시간동안 말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20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 관한한 어린아이 같이 되십시오. 그러나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내자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제 바울은 이사야(28:11-12)에서 재미있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21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흥미로운 예언입니다. 바울이 왜 여기에 이것을 언급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주된 목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불순종과 주님께 대항하는 그들의 반항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적을 붙일 것이며, 그 적들이 그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며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듣는 것은 방언일 것이며,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반항으로 인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점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사야서에서 이 특정한 구절을 인용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절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상 이 다음절은 너무나 어려워 필립스(J.B. Phillips)는 그의 번역본에서 이 구절의 번역을 자유로이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과 반대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설명할 때에 그가 방금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필립스(J.B. Phillips)는 바울이 실제로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 볼 원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을 복사하여 만든 사본의 사본의 사본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떤 원본도 남아있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원본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배했을 것이고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팔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서 사진틀에 끼어 집에 모셔 놓고는 지날 때마다 입을 맞추는 등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원본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는, 어떤 이가 초창기 사본들 중에서 하나를 옮겨 쓸 때에 혹시 실수를 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베낄 때에 실수가 있었다면 여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확실치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이 구절은 곧 이어지는 구절에 완전히 상반되는 구절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복사하는 자의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가정 없이는 이것을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명서’에, 성경은 그 원본이 신령하며, 전혀 틀림이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디모데후서 3:16) 우리는 선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초창기 사본을 만들 때에 아마 고린도 서신에서 한 옮기는 자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여유를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복사되었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계속 옮겨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필립스(J.B. Phillips)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습니다.

**22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요. 부정어 ‘않고’를 빼었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함이라. 여기에 번역된 것을 보면,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정반대를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하는 말을 문맥에 연결시켜 볼 때, 내가 언급한 것같이 다음절은 상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23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시다시피 문맥이 맞지 않지요? 만일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다음 구절에서 그것은 너희를 미쳤다고 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4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만일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 집회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25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나는 여기 번역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필립스(J.B. Phillips)의 번역이 문맥의 의미와 맞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환영하며, 이것을 설명하는 학술 논문을 쓴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충분히 만족할만한 것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나는 진심으로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본문에서 의도한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도전을 갖는다면 더 나은 통찰력을 위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알면 알수록, 나는 더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본문에 있는대로는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설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면 나누어주십시오. 논문을 쓰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누어주기를 바랍니다.

**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온 몸에 덕을 세우려고 하라. 고린도에서의 그들의 예배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각기 자기들의 것들을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은사들이나 영적인 현상들을 행하므로서 그들 자신들에게 관심을 끌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적 현상들을 관심을 끌기 위한 전시용이나 진열품 같은 것으로 만드실 의도는 없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곳에서 그렇게 관심을 끄는 진열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려고 하십시오!

**27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만일 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지침과 규율입니다)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다시 말하자면, 둘이나 세 사람이 하지,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서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제

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그 이상의 지침)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의 일부를 성령님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당신을 뒤로 물러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당신의 조절 아래 있으며,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행하도록 강요하셔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성령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29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언한다고 할 때, 자주 예언의 서문을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로 시작합니다. 글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기에 우리는 판단을 해야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고 말하면서 영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카톨릭의 카리스마적 그룹에서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하면서 마리아를 경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재해 달라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판단의 기준입니까? 이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전체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과 상반되는 어떤 것을 지금 우리에게 결코 말씀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주된 요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록된 계시와 일치하느냐는 것입니다.

**30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계시가 있어 말하기 시작하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여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을 한다면 혼잡을 가져올 것입니다.

**31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을 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씩 하나씩 모두 예언하여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안위 받고 격려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32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만나니,** 바로 이것을 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행하게 강요하셔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기에, 당신이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겐 그의 할머니의 아름다움에 호딱 반한 어린 손자가 있습니다. 이 손자는 조금 괴짜입니다. 할머니 곁을 돌면서 말하기를 할머니에게 매혹되었기에 제재하는 단추를

찾아야한다고 합니다.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혹시 성령이 질서 없게든지 말씀 밖의 어떤 것을 하라고 말한다고 느낄 때 당신을 제재하는 단추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33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예배가 대 혼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34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교회 가운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가장 질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 서신의 앞부분인 고린도 전서(11:5 절)에 바울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여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아포로디테의 신전으로부터 온 많은 창녀들의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되지 않도록 고린도에서 여자들이 베일을 쓰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일을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은 아포로디테 신전의 매춘부라는 표시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즉시 매춘부로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베일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그녀의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하는 기도나 예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여자들의 절대적인 발언 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울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35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초대 교회 당시 유대 교회의 풍습에 한 쪽 벽 있는데는 남자들이 앉고 다른 쪽 벽 있는데는 여자들이 앉았습니다. 그 중앙에는 선생님이 서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중에, 가끔 한 여자가 방 맞은편에 있는 자기 남편을 부르면서 “여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며 묻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알고 싶으면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가서 당신의 남편에게 물어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36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나 또 은사를 행함으로 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37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줄 알라.** 만일 그가 정말로 신령한 자거나 참 선지자이면 그는 알아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울이 말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를 즉시 멈추게 했습니다. 만약 그자가 참 선지자이거나 신령한 자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줄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리라.

**38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무지한 자는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39 그런즉 내 형제들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런데 바울은 12 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끝맺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말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것을 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도 예언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40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것이 근본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질서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적당하고 질서대로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15 장을 공부할 때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들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떤 몸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영광된 몸은 어떤 모습일까?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주는 것은 옳은 것인가? 이러한 흥미로운 주제들을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고린도 전서 15 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말한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로 명심케 하시고, 이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하고 온전히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지기를 진실로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 우리 주위에 필요한 곳에 당신의 뜻이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평강을 다른 이들에게 가져다 주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의 삶이 드러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고린도전서 15 장

고린도전서 15 장을 펴까요?

고린도전서 15 장에서 바울은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나는 전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했고, 너희들은 그 좋은 소식을 받았으며, 너희들은 그 좋은 소식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2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가짜 행위가 생겼고, 또 위조된 신앙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한 기본적인 복음을 굳게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곳 15 장에서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슬며시 들어온 어떤 가짜 신앙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저들에게 그가 전한 기본적인 단순한 복음을 굳게 지키도록 격려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일들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사로잡히는 것을 보면 참 슬픕니다. 그들은 곧 모든 것에 대한 비평가가 되어 결함을 찾는 비평의 열매를 그들의 삶 가운데 맺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오로지 결점만을 찾는 것밖에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는 실제로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는 이러한 생각과 관념에만 빠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더 이상 진정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단순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바울은 헛된 철학과 신학자들의 사소한 것들을 따지는 열매 없는 일들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가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크리스천이지만 이러한 열매 없는 일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기 매우 쉽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지만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체입니다. 만약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쁜 열매입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아 비판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지체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며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을 너희는 계속해서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23) 그는 예수의 십자가형에 대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비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 장에,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지우셨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 장에,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4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이사야 53 장에 있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분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에서는 주께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는 구절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래 일의 그림자들인 구약의 예징(豫徵)들로 알려진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창세기 22 장),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도착하기까지 삼일 동안 이삭과 함께 간 것을 봅시다. 거기서 그들은 함께 산으로 오르면서 사환은 산 아래에 두고 갔습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없습니다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되었도다, 그만하여라 하셨습니다. 보라,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숫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러,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의 아들 이삭은 삼일간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 “네 아들, 네 독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시리라” 와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고한 미래에 대한 아브라함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 년 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일 동안을 주께서 성경대로 사환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마 예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5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의 어느 아침에.** 복음서들은 언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열 두 제자들과 오백여 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란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 보다 나중에 거듭난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열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것을 증거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9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 내가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께서 많이 용서 받은 자가 많이 사랑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황폐시켰으며, 강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교회를 무척이나 핍박했던 그의 과거가 그에게 크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적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를 참 근심케 했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15 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더 많이 용서를 받았기에 더욱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11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내가 너희에게 부활에 대해 전하는 것이나, 그들이 부활에 대해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나, 우리는 다 부활을 전하고 있도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복음을 내가 전했고, 너희가 받았으며,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전했고 너희가 믿었느니라.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 가르침입니다. 어디서 그것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 영지주의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 안으로 살며시 들어온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주장하기를,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부활이 없다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항하여 바울은 강력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며, 너희의 믿음 또한 헛 것이고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은 것입니다.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사함도 없고 구속함도 없습니다.

18 또한 (그 이상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언하는 것은,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여기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아담을 따르는 자연인과 예수를 따르는 영적인 사람을 대조하려고 합니다. 아담을 따르는 자연인이 먼저 왔고, 예수를 따르는 영적인 사람들이 후에 왔습니다. 아담은 그의 죄로 인해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의 의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성품, 영에 속한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은 아담을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든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본성 그대로의 자연인이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사람이거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당신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17).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나쁜 성질은 얼마나 많이 잘 용서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옛 성품의 어떤 특성들을 그들의 특정된 인종에서부터 왔다는 사실로 돌리려하고, 옛 성품의 어떤 면을 승인함으로 용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글썬, 나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머리에 연합된 자들로서, 이제는 아담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은 나의 옛 아담의 성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옛 성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새 성품을 가졌습니다.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가 갖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은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모든 이들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2:5-18 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셨지만, 이제는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예수를 봅니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실 때까지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의 교회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에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인데, 그들은 대환란에서 살아남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의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왕국을 통치하실 때는 이상적인 환경 아래 있게 될 것이므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전 아담의 때처럼 사람들이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동안에는 이런 이상적인 환경 아래에서 공의로 통치할 때 이 지구에 굉장한 인구 폭발이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공의로 시행될 것이고, 우리는 집행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철장으로 다스림 같이 통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롭게 살도록 강요될 것이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의롭게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동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끝 무렵에는 사단이 잠깐 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사단은 처치를 당할 것이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옥(Gehenna)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이 있을 것이며, 죽었던 불의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지옥(Gehenna)에 내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이 멸하여졌을 때,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환 주기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지만, 그들은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의지를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사용했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항을 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하여금 동산에 있는 나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금지된 선악과의 과일을 먹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주에 한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왕국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즉 빛과 생명의 왕국과, 죽음과 암흑의 왕국인 사단의 왕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습니다. 아담은 죽음과 암흑인 사단의 왕국에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과 생명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죽음과 암흑의 사단의 왕국으로 옮겨졌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가져오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실 것이며, 그러면 다시금 이 우주에 빛과 생명의 왕국인 한 왕국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영원한 왕국! 우리는 영원히 그 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만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과 지옥은 화염 불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27 만물을 저의 발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분 아래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28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고난과 죽음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물론 만물을 복종시켰던 그 분은 복종하는데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지만 아들이 기꺼이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다시 그분의 자리에 앉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실 것이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17:5 절)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26)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지 한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주를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케 될 것이고, 그 때 아들도 그 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 매우 흥미로운 구절을 삽입했는데 참으로 혼동되는 것입니다.

**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이 없고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만일 죽은 자들이 전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 받은 자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 왜 죽은 자들을 위해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에 관한 가르침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 부분 말고는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언급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정하여졌음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

나타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사람이 죽은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조그마한 암시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도 않고, 또 영접하고 싶지도 않지만, 세례를 받기를 고집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세례 예식이 그를 구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신 일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면, 세례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행하신 일을 믿는 것에 대한 증거일 뿐 그것이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 가지로,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며, 각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매우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든가, 대신하여 세례 받는 것은 되지 않는 일인데, 하물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러한 예식을 행하는 유일한 그룹은 몰몬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죽은 친척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으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말한 것에 대해 많은 제안들이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수수께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에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 고린도에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쓴 이 서신 전체는 사실상 많은 잘못된 교리들과 예식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주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믿고 가르치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줄 만큼 너희가 바보스럽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너희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하기를, **30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릎쓰리요?**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겠는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겠는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채찍질과 감옥에 갇힘과 이 모든 핍박을 직면해야 하겠는가?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32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실제로 바울이 맹수로 싸웠었는지 아닌지 혹은 에베소에 있는 맹수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냥 인생을 만끽하며 파티나 하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의롭게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희생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33 속지 말라.** (부활이 없다는 이러한 악한 사귀는 좋은 행실을 더럽히고, 그들을 부도덕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이런 부활이 없다가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5 누가 묻기로 (바울은 이제 부활이 있음을 단언합니다) 바울이 부활이 있음을 단언하자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서신에(데살로니가전서 4:13-18),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신자들에게 관하여 염려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왕국 시대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쓰기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사랑했던 자들을 다시 만날 때,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6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땅에 씨를 심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씨가 먼저 죽을 때까지 새 생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밭이라고 합니다. 씨는 밭아되거나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씨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형체가 나옵니다.

37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당신은 다 자라 활짝 핀 카네이션 꽃을 심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심는 것은 단지 씨입니다. 당신은 글라디올라스를 심지는 않습니다. 단지 구근만을 심습니다. 그것은 죽고 그것으로부터 새 형체와 새 색깔, 아름다움 그리고 향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죽은 씨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나타날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듯이, 나는 천국에서 이 몸으로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새 몸을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공부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은 나타날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단지 밀이나 다른 알곡의 낱알을 심을 뿐입니다.

38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나의 새 몸은 어떤 모습일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뿐만 아니라 나 또한 분명히 기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보다는 향상된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모습을 참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심치 않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는 알 수는 없습니다. 땅에서 글라디올라스 구근의 갈색 부분이 죽는 것과 아름다운 분홍색 꽃과는 어떤 신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둘 다 글라디올라스인데 두 형체 사이는 어떤 신비한 관계로 맺어져 있지만, 꽃은 씨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비한 관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관련할 바가 아닌 하나님께 관련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포는 죽어가고 그것은 다른 세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몸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하는 데에 있어서 현대 과학 기술로도 알 수 없는 문제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마태복음 22:23-33 절) 가로되, 모세의 법에 의하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는데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자식이 없이 모두 죽었다 합시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그녀의 남편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어떤 터무니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고, 부활의 견해를 멸시하려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은 단지 흙과 화학적인 것들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멸시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몸이 화학적인 성분들로 형성되어졌다고 하는 가정 하에

내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 죽었다고 합시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솔개가 날아와서 나의 시신의 부분을 먹고 나머지는 흙으로 용해되어 풀이 자라났다고 합시다. 그 풀은 사실상 한 때는 내 몸의 부분이었던 이 화학 성분을 취하고, 이 풀은 또한 지나가는 소들이 먹고, 이 소에게서 우유가 나오며, 이러한 화학 성분이 함유된 이 우유를 다른 사람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한 때 나의 몸을 이루었던 화학 성분들이 다른 사람의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날에 이 화학 성분들은 누가 갖게 됩니까?

만일 당신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면, 부활의 날에 누가 이 새 심장을 갖게 됩니까? 누가 심장, 폐 또는 신체 이식을 갖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의 견해에 문제가 생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그대로 나일 것이지만 몸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암시합니다. 진정한 나는 영이지,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단지 내가 나의 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몸을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질 때,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거추장스러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탄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22-23 절)에서 말하기를, 피조물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있는 이 새로운 몸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해답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육신에 여하튼 신비롭게 연결된 굉장히 뛰어난 형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9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DNA 분자들로 육체는 형성되어지고, 사람의 육체는 짐승의 DNA와 다르며, 이 짐승은 또한 새들과 다르고, 이 새들은 물고기와 다릅니다. 육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땅에 속한 자의 영광과 다릅니다.**

**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더 큰 별들과 다른 색깔들로 된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을 망원경을 통해 보면, 각 별들은 각자의 독특한 색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다 다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다시 씨뿌리기로 돌아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 몸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사람의 혼은 아담으로부터 나오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에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아담 이신 예수께서 살려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아담이 예수님 전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흠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는 아담에게서 우리의 몸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땅의 것으로, 땅에서 났으며, 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흠에서부터 왔으니 흠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나와서 땅을 위한 육신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몸은 땅의 환경 조건에 맞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흠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48 무릇 흠에 속한 자는 저 흠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요한일서 (3:2 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졌던 몸과는 매우 다르고 뛰어난 것입니다. 그 몸은 다른 차원을 위해 계획되어진 몸이고, 또 그 몸은 중력 같은 자연의 법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몸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부활될 몸도 매우 뛰어나고 다를 것입니다.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 옛 몸으로는 천국에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은 다른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어느 날 오셔서, 그의 교회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3-18 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문맥을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로 서로 격려하라.

바울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그들과 함께 끌어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16 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1 절에 요한은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에 교회가 휴거될 것을 요한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가 휴거된 후, 대환란 기간 동안 나팔을 받아서 불려고 준비하는 일곱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 때 그것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머지 세 가지 화 중의 마지막 셋째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나팔소리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를 가져오는데,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나팔소리 때문입니다. 일곱째 나팔소리가 마지막 나팔소리라고 하여, 휴거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나팔을 불도록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들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휴거는 눈 깜박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일곱째 나팔소리, 심판의 나팔소리인, 이 일곱째 나팔소리가 나는 날은 여러 날 동안에 걸쳐 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는 화가 있을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려질 세 나팔소리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 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가 들릴 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초자연력에 의한 변형! 몸의 변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야만 합니다. 이 육신은 부패해 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화작용이 생명을 잃도록 하고 몸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53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하다.**  
(새로운 몸을 말합니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멋집니다! 죽음, 그것은 마지막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55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이것이 사망을 만든 것이요 이것이 사망을 가져 온 것입니다. 허물과 죄 안에 있는 죽음, 이것이 사망의 쏘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을 통하여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의 쏘는 것인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게 서라! 강건하라!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여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일시적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전 생애를 한가지 일에 전신했지만 결국에는 다 허사로 돌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 기여한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린다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든지 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준다면 그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원하며, 영구적이고,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입니까?

그저 지나가고, 없어지며, 영구적인 가치가 없는 일에 당신의 삶을 다 바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영원한 일에 당신의 삶이 드러진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이 행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50 명에게 복음을 증거 했는데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당신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봉급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당신에게 주님을 증거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증거 하는 것, 당신은 단지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다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 주님! 당신과 함께 있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주님! 적의 공격에 견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전서 16장을 펴십시오.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에 관해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의 부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즉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쏘는 것을 제거하신 것에 대한 영광의 극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승리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돌리며 15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너무나 영적이라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경배와 찬양의 극치로 우리를 데려갔고, 그리고 16장에서 일종의 “쿵”하고 떨어지는 것같이,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는 매우 실질적인 일들을 다루면서 16장을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배드리며 천국을 맛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실질적인 일들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장에서 매우 실질적인 일들로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걷는 것입니다.

**1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모금하여 저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기 전에 미리하고, 내가 거기에 있을 동안에는 어떤 헌금이나 모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너희들의 후한 연보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너희들이 매주 첫날에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초대 교회에서도 매주일 첫날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관해서 사도행전 (20:7절)에서도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To Every Man an Answer”에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질문해 오는 것은, 한주 중에서 어느 날에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14:5)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한주 중에서 한날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 날 주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13-17절). 이것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손 대대에 걸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적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의 다른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온 땅에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노아에게 하신 언약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의 씨로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 땅을 영원한 선물로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적으로서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만일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재앙도 너희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백성들에게는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를 주셨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으로 유대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매주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날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첫 모임은 예수님께서 주중 첫날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인, 주중의 첫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8일 후,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도 이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매주 첫날이 교회가 모이는 날이 되었고, 그들은 매주 첫날을 주님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절기나, 새 달이나, 안식일, 등에 관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치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가울 것들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의 일을 쉬고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스러이 이루어 놓으신 일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희들에게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두라고 합니다. 주목하여 볼 것은, 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요지는 우리는 한 교회라는 교회의 보편성을 그들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곳 고린도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 모금하여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든지, 고린도든지, 어느 곳이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교회가 대응하여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 복 주시는 대로, 그들은 고통당할지 모르는 다른 지역의 교회를 위하여 저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위로금'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구 킹 제임스 번역본에 있는 은혜 또는 위로금이라는 단어는 당신이 기꺼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기꺼이 주는 것은 어떤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연보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며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다면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기꺼이 드러진 헌금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하여 질 것입니다. **4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 이방인 교회들로부터의 헌금을 가지고 직접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는 일종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순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항상 이런 종류의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는 것처럼 느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형제로 인정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원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의 교회에 그때까지 적잖은 분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상 이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자유를 정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며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내려왔고, 그 때 바울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었으므로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오기 전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자리를 옮겨 단지 유대인들하고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상하게 했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분열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들 보다 하등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 줄 헌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서 걷어간 이 헌금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을 위한 이방인 신자들의 사랑과 또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종의 연합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단자란 그들과 다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물론 자신을 진짜 정통파라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이단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믿는 것만이 참 진리이고, 만일 내가 믿는 방법과 똑같이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정통성을 의문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해결키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갈보리 채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무척이나 질투하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질투심은 사실상 육체적으로 그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 우리의 사역의 성공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었고, 특히 우리들이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들의 유효성을 믿는 것으로 인해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함께 모든 은사들은 끝이 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들의 유효성을 믿으며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하고 있는 것이 그를 점점 더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주일마다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에 대항하는 설교를 시리즈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긴 시리즈였고, 결국은 임원회에서 그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리즈 외에 다른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 우리의 사역에 대해 나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는 그가 위험한 수술을 해야 했고, 또 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형제로서 사랑한다는 표시로, 그의 병원 비용과 의사 비용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쓴 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울은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대단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사랑을 보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한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혔던 담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셨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이 헌금을 보내는 것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헌금을 갖고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하는 몇 사람과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간 헌금을 직접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5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6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바울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그의 여행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너희에게로 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며, 어쩌면 겨울을 그들과 함께 지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6월, 오순절 절기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었습니다. 그 후에 여름동안 마게도니아를 거쳐 고린도로 가서 아마 겨울을 지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의 뜻이거나 혹은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을 주목하십시오. 야고보(야고보서 4:15)는 우리가 내일 이것을 하며 저것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개 융통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항상 변경시키거나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의 뜻이라면, 만약 주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개방 되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융통성 없이 완고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려야지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려야지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만일 당신이 그토록 완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 당신을 깨뜨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영을 깨기 위해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던 요나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옹바의 항구로 가서는 반대 방향의 배를 탔습니다. 그는 니느웨로부터 가장 먼 땅의 끝인 다시스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가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선장은 배 밑층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러한 거친 태풍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나에게 그의 신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저들에게 임하였는가를 고하라 했습니다.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하여 이러한 재앙이 있으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했습니다. 요나는, 나를 다시 옹바로 데려다 달라, 그러면 니느웨로 갈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만 나를 바다로 던지라고만 했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으니, 나를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못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요나는, 그래, 이제 끝이로다.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셨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배속에서 삼일 삼야를 있었습니다. 만일 그 고기가 포유동물이었다면 화씨 98.6도로 매우 뜨거웠을 것입니다. 습기 또한 끔찍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 풀이 그를 감쌌고 위액이 그를 돌렸으며 물의

깊음이 그를 에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끔찍하게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다 풀이 당신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캄캄 어두웠을 것이며, 고기는 물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것이니, 그는 아마도 심한 멀미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삼일 후에 요나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삼일 동안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거친 후에 말입니다. 아니요,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노라!고 버티는 요나를 깨뜨리기 위해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요나는 깨뜨려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연성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고함에 대하여 조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의 뜻이면”,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도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다음 6개월 동안의 나의 계획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이곳에 있을 계획이고, 그 후에 마게도니아를 지나 너희에게 갈려고 하는데,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지낼 듯 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사역 초창기에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주께서 막으셨습니다(사도행전 16:6-7절). 그래서 또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로 정하였지만, 그것 또한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어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유연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의 뜻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목적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뜨려야만 하는 그런 고정된 생각을 경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입니다.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8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9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 바울은 내가 이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적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절대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나는 여기 머물러 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있을 계획인데, 왜냐하면 이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고,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10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바울은 다른 곳에 디모데에 대해 말하기를,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나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고, 또 바울의 비전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과 똑같은 부담감과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디모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어떤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모두들 자신의 유익을 구했지만, 디모데는 사역을 위한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아직 젊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말하기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 당시에 살면서 목사로 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나는 아마도 거절했을 것입니다. 목사로 있기를 원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열이 있었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까지도 힘들게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경험을 한 바울에게도 힘들게 했다면, 이 젊은 디모데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권고하기를 디모데에게 겁주지 말고, 그가 두려움 없이 내게 한 것처럼 주의 일을 하도록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11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연소함을 멸시하지 말라) 평안히 보내어, 디모데는 바울이 보낸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로 갔고,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 때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를 영접하고, 잘 대해 주어라. 왜냐하면 그가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다시 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2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흥미로운 것은 아볼로는 사도행전(18:24절)에서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성경에 능한 자로 우리에게 잠시 소개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영 안에서 열성적인 대단한 변증자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설립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후 그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왔습니다. 그의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하여 잘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그는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너무나 인기가 있었으므로, 놀기를 좋아하는 육에 속한 고린도 사람들이,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에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베드로에게속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아볼로가 누구냐?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에 아직도 아볼로에게 헌신을 맹세하면서 분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각각 우리는 바울에게,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볼로가 너희에게 가기를 진정으로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너희들에게 오기엔 너무 유명 인사라 너희들에게 오는 것에 관심이 없다 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나는 가기를 원했지만 갈수 없는 일이 생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는 아볼로에 관해서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기를 정말로 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인기가 있고, 또 너희들이 그를 사랑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볼로는 이때 바울 하고 에베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한 성격을 지니고, 서로 다른 큰 사역들을 하고 있었지만, 이곳 에베소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아볼로에게 저들이 그를 존경하므로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너를 환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때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더 형편이 좋아질 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아볼로가 갈 뜻이 없음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짤막한 권면을 연속으로 합니다. 첫째로, 13 깨어 있으라. 경계하라. 사단이 멀하려고 찾아다니고 있으니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라,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의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셋째로, 남자답게 처신하라! 비겁해지지 말라. 바울은 앞에서 그들이 어린아이들 같음을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단단한 것으로 너희에게 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젖을 필요로 하니, 너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로다. 장성하라! 그래서 이제 남자답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없이 나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지 말고 남자답게 행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여라.

14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여라. 사랑으로 행하라.

**15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참으로 대단한 구절이 아닙니까?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려고 헌신했습니다.**

스테바나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개심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아주 적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우리는 게바에게요, 우리는 아볼로에게요, 등등 말하는 것으로 인해,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테바나는 첫 열매의 하나이었고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16 이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바울의 영적 지도력을 보십시오) **17 내가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교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아마도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담은 편지를 바울에게 전하여 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로 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형제들인 그들이 온 것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 이니라.** 그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바울에게 필요한 정보들과 물질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온 것을 기뻐했노라.

**18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 주라.**

**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에 의해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몇으로서, 그들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일감을 주어서 그가 고린도에 있을 동안 경제적으로 교회에 의존치 않고 자기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울을, 그는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라고 결코 비난하지 못하도록 바울은 그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야 했습니다. 주후 49년이나 50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났으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을 때 그들도 바울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에베소로 갔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어서 그들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만드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장막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고,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들과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서 그들의 집을 개방했고,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3세기가 되기까지 교회는 어떤 건물도 갖지 못했기에 초대 교회에는 대부분 집에 가장 큰 방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의 사업의 성공으로 크고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은 그들의 집을 교회가 만나는 장소로 개방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왔고 또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었기에(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함께 문안 인사를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그의 계획대로 고린도로 갔을 때,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의 편지를 보냈을 때 말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로마로 이사를 했으며, 로마에서도 믿는 자들이 모이도록 그들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들은 멋진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접대하기를 기뻐하며 항상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집을 개방하는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로마에서도 그들의 집을 개방하는 굉장히 멋진 사람들입니다.



20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초대교회 시대에 그곳의 관습으로 볼에나 이마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했습니다. 이곳에 키가 크고 나의 머리 위에 입맞춤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후에 그들은 손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에게는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문안하는 방법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맨틱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일이었고 아마도 오늘날 포옹하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을 대신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바울은 대필자에게 편지를 불러주어 대신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에 그의 이름을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듭니다. 그리고는 쓰기를 **21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은 심한 시각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4:1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바울은 심한 시각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6:11절)에서도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나쁜 시력으로 인해 글자의 크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기 위해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끝으로 개인적인 짧은 편지를 씁니다. **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죄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삶에 아주 비참한 영향을 끼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로서, 구약은 메시아에 관해서 영광스러운 군림을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좌 위에 앉으시어 심판과 공의로 그 후로부터 영원히 임하신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그분은 다윗의 왕좌의 왕관을 쓰신 것이 아니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 가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창세기 3:17-18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덤불은 저주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시는 자라지 못한 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사막이 장미처럼 꽃이 필 것이라는 왕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제거되고, 선인장의 모든 가시에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장미처럼 꽃이 핀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저주가 가시덤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께 가시관으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죄의 저주아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도 황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는 바울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에 이 단어는 아람어로 마라나타(주의 오심)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하여 당신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 물질적인 세상에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억해야 하는지요. 사실 초대 교회 때는 그것이 통상 인사였습니다. 교회에서나 시장에서 그들은 주께서 오시리라 라는 마라나타를 말하면서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었고 위로와 소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 당시 매우 심한 핍박과 어려운 때를 보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낙담하기 쉬운 상황에서, 주께서 오십니다! 마라나타! 라는 말은 올바른 관점을 계속 갖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은혜로 끝맺음을 합니다.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24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사말인 예수의 은혜와 함께 끝을 맺으며,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는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의 이 권면을 인해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항상 조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일에만 관심을 두어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핍박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과 시베리아와 우크레인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들도 모두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았던 이 충만한 축복을 서로 나누기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